

碩 士 學 位 論 文

KING LEAR 연구
악의 양상과 자아인식의 여정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濟州大學校 大學院
英語英文學科

110.363

曹 奉 圭

2000年 12月

A STUDY OF *KING LEAR*

The Aspects of Evil and the Journey of Self-recognition

Cho Bong-Gyu

(Supervised by Professor Kwon Young-Keu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2000. 12.

KING LEAR 연구

악의 양상과 자아인식의 여정

指導教授 權 英 根

曹 奉 圭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0年 12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曹奉圭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0年 12月

목 차

I. 서	론	1
II. 질서파괴와 악의 발현			
1. King Lear		7
2. Gloucester		14
III. 악의 실체			
1. 에니멀리즘적 양상		20
2. 마키아벨리즘적 양상		27
IV. 고통과 자아인식			
1. 광증속의 이성		34
2. 실명속의 통찰		50
V. 결	론	62
Bibliography		65
Abstract		68

I. 서론

*King Lear*는 Shakespeare의 비극들 가운데 인간 존재와 운명 전반에 대한 문제와 함께 여러 가지 연극상의 문제¹⁾들을 제기한 비평상의 논쟁 대상이 되는 작품이다. *King Lear*에 대한 상반된 비평상의 견해로 일부 비평가들은 Shakespeare의 *King Lear*가 4대 비극 중에서 가장 인기 없는 작품이고, 다른 비극에 비해 상연된 횟수가 적었으며, 상연되어도 관객의 호응을 얻지 못한 이유를 이러한 연극상의 문제들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King Lear*가 Shakespeare의 최고 역작으로 일컬어지는 이유는 *King Lear*에는 인간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선과 악²⁾의 전형적인 요소들

1) N. Tate, Johnson 그리고 G. Orwell 등 일부의 비평가들이 *King Lear*의 연극상의 문제들을 지적해 왔으나, A. C. Bradley는 연극적 결함을 변호하면서 연극 공연상의 문제가 없음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203-206)

첫째, 눈이 먼 Gloucester가 평지에서 넘어지는 대목에 대해, “*King Lear*속에 흐르는 정신과 어울릴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연기를 하면 결코 무대상연에 무리가 없다.”

둘째, 왕국분할의 불합리성에 대해, “Lear의 본래 계획은 정신 없는 성급함이나 믿어지지 않는 바보짓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셋째, 고통이 지나치게 표출되었다고 비난받는 Gloucester의 눈을 뽑는 대목에 대해, “이 장면은 무대에서 실연될 경우, 너무나도 끔찍하여 순수한 비극적 감정을 압도할 정도다. 그러나 이 대목을 글로 읽고 상상만 할 경우에는 그 공포감이 불쌍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을 할 정도로 축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상상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2) 많은 비평가들은 *King Lear*의 등장인물을 성격에 따라 선과 악의 그룹으로 분류·고찰하였는데, J. E. Hankins는 선과 악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24)

Elizabeth조 시대인들은 중세의 전통적 기독교 사상에 바탕을 둔 천동설, 합리주의, 금욕주의를 믿고 있었다. 이들의 질서관념은 “the Great Chain of Being”에 바탕을 두고서, 신 아래 모든 존재가 하나의 연쇄 고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다. 그 연쇄 고리의 정점에는 신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아래 천사가 있고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의 순으로 지상의 모든 존재를 연결하고 있다. 그리고 각 연쇄 고리에는 또 위계 질서를 나타내는 계층이 있어서, 인간 가운데는 왕, 동물 가운데는 사자, 식물 중에는 오크나무, 무생물 중에는 금이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모든 질서는 상호 관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중 어느 한 질서가 파괴되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다른 질서가 따라서 파괴되어 우주적 무질서를 야기 시킨다고 생각했고,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죄악이고 그 죄악에는 고통이라는 신의 벌이 내린다고 믿고 있었다. 또한 인간은 천사와 동물의 중간자적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내면에서는 언제나

이 등장인물들을 통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 시인의 비극적 시각을 통하여 인간의 삶의 의미와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삶의 진리를 깨달아 자아 성숙을 이루어 가는 Lear의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재고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극의 주인공 Lear의 경우, 정신적 맹목상태에서 선과 악을 잘못 판단함으로써 야기된 질서파괴로 인한 악의 발현, 그로 인한 수많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통한 자아인식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천륜의 정이 점점 도외시되어 가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인간의 위대함에 대해 우리 자신을 반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극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이 점이 Shakespeare의 전 작품 중에서 한 작품만을 택하게 될 경우에 *King Lear*를 주저하지 않고 택하게 되는 이유일 것이다. Edward Dowden은 “*King Lear* is, indeed, the greatest single achievement in poetry of the Teutonic, or northern genius.” (257)라고 지적하면서 이 작품의 우수성을 칭찬하고 있고, Wilson Knight도 *King Lear*는 풍부한 인간성 묘사와 인간의 정화적 고난을 통한 자아성숙을 추구한 위대한 작품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King Lear is great in the abundance and richness of human delineation, in the level focus of creation that builds a massive oneness, in fact, a universe, of single quality from a multiplicity of differentiated units; and purposeful working out of a purgatorial philosophy. (160-161)

두 개념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것은 크게 이성과 본능의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도덕적으로는 선과 악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이성의 범위 내에서 도덕적 양심을 지니는 행동과 마음의 자세는 선인 반면, 양심을 쫓지 않고 도덕률을 어기는 마음자세는 악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삶과 창조는 선의 요소인 반면, 파괴와 죽음은 악의 요소로 여겨졌다.

본 논문에서는 선과 악의 개념을 Hankins의 주장에 근거를 두고 애니멀리즘과 마키아벨리즘도 이러한 악의 범주에서 논리를 전개하게 될 것이다.

*King Lear*의 악의 발현과 악의 전개양상을 살펴보면, Lear와 Gloucester의 악의 발현은 제 각각 질서파괴로 인한 범죄에 그 원인이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악의 발현과 질서파괴의 행위는 Lear의 경우, 조화로운 우주 질서 가운데 통치되는 왕국을 스스로 분리시킴으로써 국가의 정치적 질서파괴를 초래한다. 그 결과 Goneril과 Regan의 악의 양상인 “애니멀리즘(Animalism)”³⁾으로 인하여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광야로 쫓겨나가 결국 미치게되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된다. 한편 Gloucester의 경우에는, 천륜의 윤리적 질서 속에서 유지되어야 할 부모와 자식간에 인간세계의 질서파괴를 초래한 결과 Edmund의 악의 양상인 마키아벨리즘(Machiavellism)⁴⁾에 의

3) *Webster's Revised Unabridged Dictionary* (1913)에서는 “애니멀리즘”을 “the doctrine that human beings are purely animal in nature and lacking a spiritual nature”라고 규정하고 있고, K. Muir는 이 작품에 나타난 동물 이미저리의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his imagery is designed partly to show man's place in the Chain of Being, and to bring out the sub-human nature of the evil characters, partly to show man's weakness compared with the animals, and partly to compare human existence to the life of the jungle. (1975, 54)

당시의 질서관에 의하면 인간은 천사와 동물의 중간자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천사와 동물의 본성을 동시에 지니는 중간자적 존재로서, 이성을 상실하면 짐승과 같은 포악한 본성에 빠져 동물의 본성으로 전이되는 것을 의미했다. Lear가 Goneril과 Regan에게 퍼붓는 욕설 가운데 동물 이미저리가 많이 거론되는 것은 그들의 야만성, 추악성, 나락, 음탕, 속임 등의 의미 외에도 근본적으로 그들이 천사적 본성을 상실한 타락된 인간, 즉 동물에로의 전이를 암시하고 있는 예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애니멀리즘”을 위에서 언급한 사전적 의미와 “the Great Chain of Being”의 질서 관에 기초한 Muir의 이론에 근거를 두고 논리를 전개하게 될 것이다.

4) 마키아벨리즘은 N. B. Machiavelli가 *The Prince*에서 “이탈리아 구국을 위해서는 먼저 국내통일과 외세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가 절대 필요시 되고, 그 실행은 오로지 폭군적인 전제군주로만 가능하며, 국가는 신의 섭리에서가 아니라 그 자체의 존엄성에서 존재하며, 그러기에 국가의 법은 절대적이고 개인은 국가 내에서만 그 존재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 있다. 국가를 떠난 개인은 상상할 수도 없고, 도덕과 종교도 국가의 법과 일치함으로써만 그 생명이 발휘된다” (임명방 23)라고 주장하여 그 당시 교회와 신의 존재 그리고 도덕적 윤리를 거부함으로써 그 시대인들에게는 Machiavelli는 파렴치한 무신론자, 질서 파괴자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해 두 눈이 멀게되는 참혹한 육체적 고통을 당하게 된다. Shakespeare는 이러한 Lear의 정신적 고통을 상징하는 광증(Madness)을 주 플롯의 주제로, 그리고 Gloucester의 육체적 고통을 상징하는 실명(Blindness)을 부 플롯의 주제로 하는 이중 구조를 부여하여, 극 속에서 그것들이 통합되면서 상승적인 극적 효과를 가져오게 하고 있다. 즉 두 주인공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거쳐 새로운 차원의 자아인식의 종착역에 도달케 하는데 있어서 정화적 고통과정의 핵심이 되는 개념으로 광증과 실명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고는 *King Lear*에 나타난 대표적 악의 양상인 애니멀리즘과 마키아벨리즘이 작품의 갈등구조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여 작품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Lear의 “광증속의 이성(Reason in Madness)”⁵⁾ (IV.vi. 177)과 Gloucester의 ‘실명속의 통찰

그리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본 작품의 Edmund와 같은 “마키아벨리언”의 특징에 대해 Felix Gilbert는 “마키아벨리언은 자기 자신의 이익과 욕망만을 추구하여 그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악한 방법을 동원함에 있어 전혀 거리낌이 없다. 또한 상대에게 선의와 경건한 언행을 보임으로써 자신 본래의 의도를 감추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교묘하게 술책을 부려 상대방을 이용한다.”라고 요약하고 있다. (11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마키아벨리즘 이론 중에서도, 위에 언급한 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마키아벨리즘을 자기의 권력과 세력 팽창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즉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의미로 한정하고 있다.

5) 『東亞原色世界大百科事典』(1985)에서는 “이성”을 “사물을 옳게 판단하는 힘, 또는 진위(眞僞), 선악(善惡)을 식별하는 능력”으로, 『哲學用語事典』(중원문화 1987)에서는 “일반적으로 보고 들어서 아는 감각적 능력과 구별되는 개념(概念)에 의한 사유능력(思惟能力)”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광증속의 이성”에서 “이성”의 의미는 위에서 언급한 百科事典적 의미에, 진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Lear가 고통을 통하여 자신이 착각했던 허구와 진실을 올바르게 분별하게 되어 완전한 광증 상태에서 역설적으로 내면의 이성적인 진실을 깨달아 정신적으로 구원(regeneration)에 이르게 되는 의미가 결합된 상징적 의미에 중점을 둔 “이성”이다.

이러한 의미의 “이성”의 관점에서, Heilman은 “광증속의 이성” 구절을 이 극 전체 구조의 핵심으로 보았으며, Lear가 “in madness”상태에서 현명해지면서 심안의 통찰력을 얻는 것이라 주장한다. (173) 반면에 Duthie는 Lear가 통찰력 획득과 자아인식의 과정을 “in madness” 상태에서가 아니라 “through madness”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고통을 통한 심안의 통찰력은 Lear가 정신을 완전히 회복하였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38)

(Insight in Blindness)⁶⁾이라는 자아인식에 어떻게 도달하게 되는지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접근을 위해서는 Lear와 Gloucester가 겪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그 목적이 아니라 고귀한 자아인식이라는 종착역에 이르게 하기 위한 작가의 숨겨진 가혹한 의도적인 수단이며, 애니멀리즘과 마키아벨리즘의 관점에서 *King Lear*을 접근할 때, 이 작품을 통해 작가가 나타내고자 한 삶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본 고가 분석하는 작품에 나타난 비극은 고통이나 고난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표출되는 인간적 위대함과 고통의 신비감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주인공이 혹독한 고난과 고뇌를 통한 내적 갈등의 경험이라는 가혹한 과정을 거쳐 “Wisdom comes only through sufferings.” (Muller 64)라는 원리에 따라 궁극적 인식에 도달하는 것이다. 또한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처지에서 스스로 죄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혼자서 지게 됨으로서 고난의 양상이 더욱더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고통의 신비감과 주인공의 자각을 통한 인식은 그만큼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됨을 밝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King Lear*를 주인공 자신의 그릇된 판단 또는 과오로부터 겪게되는 고통의 여정을 통해 삶의 궁극적 인식을 위해 끊임없이 부여되는 고통의 과정을 통과해 가는 인간 의지를 표출하는 작품으로서 그 의의를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본고의 제Ⅱ장에서는 Lear와 Gloucester가 제각각 어떤 성격의 소유자이어서 그렇게도 비참한 비극이 전개되는지 *King Lear*와 Gloucester의 질서파괴로 인한 악의 발현 과정을 다루고, 제Ⅲ장에

6) 본 논문에서의 ‘통찰’의 의미는 Lear의 “광증속의 이성” 구절의 “이성”의 의미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상징적인 의미의 ‘통찰’이다. Gloucester가 두 눈을 상실한 후 Edgar에 대한 자신의 잘못된 인식과 더불어 “내 살아 생전에 너를 만져 볼 수만 있다면, 다시 두 눈을 갖게 되었다고 말 할 수 있겠다. (Might I but to see thee in touch, / I’d say I had eyes again.)” (IV. i. 23-24)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무대에서 이 대사 직후에 Poor Tom으로 가장한 Edgar를 만남으로써, Gloucester가 자신의 말대로 내면의 눈의 시력을 다시 회복하는 상징적 장면에 중점을 둔 의미이다.

서는 악의 실체인 Goneril과 Regan의 악의 양상인 애니멀리즘과 Edmund의 악의 양상인 마키아벨리즘으로 각각 나누어 고찰하고, 두 가지 중요 악의 양상들이 작품의 갈등구조 속에서 어떻게 작품 전체에 작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질서 파괴로 인해 겪게되는 Lear와 Gloucester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Lear와 Gloucester가 제각각 어떻게 자아인식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제Ⅴ장은 결론으로서 지금까지 고찰한 것을 종합 정리하게 될 것이다.



II. 질서파괴와 악의 발현

1. King Lear

*King Lear*는 Shakespeare의 다른 어떤 비극 작품보다도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Shakespeare는 기존 역사서나 작품⁷⁾에서 Lear의 주 플롯을 빌려 왔지만, 거기에 Gloucester의 부 플롯을 가미하여 극적 효과를 높이는 독창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극의 특징적 구성인 이중 플롯, 즉 Gloucester를 중심으로 한 적자 Edgar와 서자 Edmund가 엮는 Gloucester의 부 플롯은 Lear 왕을 중심으로 한 Regan, Goneril이 엮는 Lear의 주 플롯과 평행으로 진행되며, Lear의 주 플롯을 통해 제시되는 주제를 심화·확대시키고 있다. Elton은 이 작품에서 이중 플롯은, 발전적 은유로써 중요한 극적 행위들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서로가 서로를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전개되며, 주인공의 정체성 탐색 즉 자아인식의 추구라는 주제적 의미를 표출하는데 서로를 강조해 주면서, 극적 기교로서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Indeed, it may be possible to regard the double plot as a developing metaphor, opening up the principle action into two parts that mirror each other. Such a device would be appropriate to a play in which the protagonist express a dissociation between his name and his identity, so that his person dissolves into a dual personage, a character in search of himself. (256)

Lear의 주 플롯의 질서파괴로 인한 악의 발현은, 앞에서 언급한 Hankins의 “the Great Chain of Being”에 근거를 두고 접근할 경우, Lear

7) *King Lear*의 Lear 왕을 중심으로 한 주 플롯의 원전은 Holinshed의 *Chronicles*, *Mirror for Magistrates*, 작자 불명의 *The True Chronicles History of King Lear*, Spenser의 *Faerie Queene*에서, 그리고 Gloucester를 중심으로 한 부 플롯은 Philip Sidney의 *Arcadia*에서 각기 소재를 얻고 있다.

가 왕국을 분단하는데서 비롯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Lear는 전제군주의 자만심에 휩싸인 나머지, 왕국과 왕실의 질서를 파괴하여 악이 발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Lear왕은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이제부터 나의 은밀한 계획을 말하겠다.
거기 있는 지도를 이리 다오. 알다시피 나는 왕국을
이미 삼등분 해냈다. 이제 늙은 이 몸에서 근심 걱정을
다 떨어버리고, 젊고 활기에 넘치는 자에게 국사를
넘겨주고 싶어서다. 죽을 때까지 홀가분한 기분으로
지내고 싶은 것이 나의 바람이다.⁸⁾

Meantime, we shall express our darken purpose.
Give me the map here. Know that we have divided
In three our kingdom; and 'tis our fast intent
To shake all cares and business from our age,
Conferring them on younger strengths, while we
Unburthen'd crawl toward death. (I . i . 35-40)⁹⁾

영토를 삼 등분하여 분배하고 자신은 “왕이라는 칭호와 그에 따르는 명예”만 보유하면서 “국가의 통치권이며 조세권, 기타의 집행권”등 왕으로서의 실무와 실권은 모두 젊은 세대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다.

오직 짐은
왕이라는 칭호와 그에 따르는 명예만 보유하겠노라.
국가의 통치권이며 조세권, 기타의 집행권은,
사랑하는 사위들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 증거로,
이 왕관을 둘에게 넘기노라.

Only we shall retain
The name and all the addition to a king;

8) 윌리엄 셰익스피어, 『리어왕』, 이태주 역, (서울: 범우사, 1993), p. 228. 이후의 논문에 나오는 번역문은 이 책에서 인용한 것임.

9) William Shakespeare, *King Lear*, ed. Kenneth Muir (London: Methuen, 1972), p. 46. 이후의 논문에 나오는 원문의 인용은 괄호 속에 막·장·행만 표시함.

The sway, revenue, execution of the rest,
Beloved sons, be yours: which to confirm,
This coronet part between you. (I. i. 134-138)

Ribner는 질서(order)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 국가를 삼 등분하여 세 딸에게 물려주면서도 왕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현실성 없는 계획은 당대 관객들에게는 놀랍고도 무서운 사실이었을 것이며, 왕의 이와 같은 행위는 중세적 정치 신학(political theology) 사상에 따라 신의 대행자로서 신에 대한 책임 위반으로 보고 있다. (118) 신의 대행자로서의 책임을 지닌 왕 Lear는 질서 가운데 통치되는 왕국을 스스로 분리시킴으로써, 국가의 정치질서를 파괴하여 자기 자신과 왕국은 물론 외부의 자연계까지도 무질서를 초래하게 하는 악의 발현을 제공하는 것이다.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르네상스 시대인들에게는 질서가 핵심적 용어였는데, 질서 파괴에 대한 당시대인들의 생각에 대해 Tillyard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To us chaos means hardly more than confusion on a large scale; to an Elizabethan it meant the cosmic anarchy before creation and the wholesale dissolution. (16)

당시 질서 개념에 따르면 한 국가란 전체 우주계의 일부로서 대우주(macrocasm)와 인간 개인(microcosm) 사이의 중간 단계이고, 신이 창조한 이 세 단계는 서로 조화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Lear의 이와 같은 극의 서막에서의 악의 발현은 창조세계의 상하 계층 전체에 영향을 미쳐 무질서 즉 전체적 파멸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 문상득의 주장은 흥미롭다. 그는 “Elizabeth시대에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변동이 심하고 중세와 Renaissance 사상이 서로 교차함으로써 내부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었다. 그러나 한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그 전까지 정치적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이 때에 와서 비로소 정치적으로 비교적 통일된 안정기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이로써 당시 사람

들은 정치적으로 동요를 받지 않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분위기에서 세상 사리를 역사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정치적으로 통일된 사회를 갖는다는 것은 국가적 숙원이었으며,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모든 발전을 위한 원동력의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현실적으로 국가가 분할된다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가장 혐오할 만한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King Lear*에서 Lear가 그의 딸들에게 영토를 분할해 준다는 것은 그 자체가 통일된 안정을 갈망했던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로써 비극의 발단이 되는 상징적 사건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28-29) Lear는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질서파괴 행위를 저질러 놓음으로써 이 작품의 비극적 발단인 악의 발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오류 때문에 Lear는 인간으로서 참기 어려운 고통과 고뇌를 겪게되는 경험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질서파괴로 인한 혼란은 사랑 겨루기(love contest)에서 Lear가 외양과 실재(appearance and reality)를 구별하지 못함으로써 조화로운 우주 질서 속에서 유지되는 자식간의 질서를 파괴하는 결정적 과오를 범하게 된다. 왕국을 분할하여 영토를 딸들에게 나누어주고 딸들에게는 그 반대급부로 사랑의 정도를 표현해 보라는 것이다. 큰딸인 Goneril은 다음과 같이 사랑과 충성의 맹세를 한다.

폐하,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력보다도 무한한 자유보다도 훨씬 값진 분으로,
값비싸고 희귀한 그 어느 것 이상으로,
품위와 건강과 미와 명예가 구비된 생명만큼이나,
이제까지 자식이 바치고, 아버지가 받은 바 있는 최대의 애정으로,
그 애정은 말로 표현하는 것을 웅색하게 합니다만,
무엇에도 견줄 수 없을 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Sir, I love you more than words can wield the matter;
Dearer than eye-sight, space and liberty;
Beyond what can be valu'd rich or rare;
No less than life, with grace, health, beauty, honour;
As much as child e'er lov'd, or father found;

A love that makes breath poor and speech unable;
Beyond all manner of so much I love you. (I . i . 54-60)

Goneril은 Cordelia가 “저는 진심을 입밖에 낼 줄 모릅니다 (I cannot heave / My heart into my mouth)” (I . i . 90-91)라고 진실을 말한 것과는 달리, Lear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에 충분한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Lear의 실수에는 Goneril의 겉과 속이 다른 대답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어리석은 사랑 겨루기는 사랑의 정도를 물질적으로 주고받는 양에 의해 평가하는 반이성적 행위와 더불어 전체적 혼란의 일부에 불과하다. Lear 왕이 그의 계획된 의도를 어리석게도 즉흥적으로 바꾸는 일이나, Gloucester가 마키아벨리즘적인 수법을 이용하고 있는 Edmund의 모략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쉽게 동조하고 있는 일들은, 인간 사회에서 Lear 왕이 그의 왕국을 분할하고 신에 대한 그의 의무를 포기하는 선행된 결정 때문에 빠져 들어가는 전체적 대 교란과 혼돈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질서 파괴적 행동은 관객들에게 Lear왕이 범한 죄과의 중대성과 그것이 전체 질서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하게 해주는 동시에, Lear 왕으로 하여금 Goneril과 Regan의 거짓된 사랑은 받아들이고 동시에 Cordelia의 진실한 사랑은 거부하게 되는 가치전도의 최악의 길로 빠져들게 만든다. Cordelia가 그의 아버지를 사랑하되 “자식된 도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사랑한다 (according to my bond ; nor more nor less)” (I . i . 92)는 말은 천륜에 따라 사랑하는 것으로써 “도리(bond)”는 법적인 의미 이상의 “도리”를 의미한다. (Traversi 1956, 142) 이것은 자연이 그에게 준 “도리”이며 나아가서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 “도리”는 조화로운 우주 질서 속에서 자식과 부모간을 연결시켜 주는 “도리”이다. Cordelia의 부모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솔직하며, 그의 언니들이 아첨하고 과장되고 감상적인 표현과는 거리가 멀다.

아버님,

아버님은 저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땅히 그 답례를 올리는 것이 저의 의무입니다.
아버님께 복종하고 아버님을 사랑하며 존경하렵니다.

Good my lord,
You have begot me, bred me, love me: I
Return those duties back as right fit,
Obey you, love you, and most honour you. (I. i. 94-97)

이와 같은 사랑의 표현은 합리적이며 그것은 당대인들이 믿고 있는 신과 인간 사회의 의무를 다같이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외양과 실재를 구분하지 못하는 Lear는 이 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Goneril과 Regan의 거짓 사랑은 받아들이고, Cordelia의 진실한 사랑을 거부하게 되는 가치전도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 Cordelia가 주장하는 천륜의 관계마저 끊어버린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이 자리에서 나는 아버지로서의 모든 배려와
혈연관계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영원히 너를 나와는 관련이 없는
너를 생판 타인으로 여기겠노라.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기 육친까지도 먹어치운다는
시디아의 야만인이 지금까지 나의 딸이었던 너보다도
더 가깝고 측은하게 생각되어 차라리
그를 도와주고 싶어지는 구나.

Here I disclaim all my paternal care,
Propinquity and property of blood,
And as a stranger to my heart and me
Hold thee from this for ever. The barbarous Scythian,
Or he that makes his generation messes
To gorge appetite, shall to my bosom
Be as well neighbour'd, pitied, and reliev'd,
As thou my sometime daughter. (I. i. 112-119)

Morris는 Cordelia를 저버리는 것은 신을 부인하는 죄악으로까지 확대해석하고 있다. (116) 이 같은 현상과 실제에 대한 가치전도의 혼돈은 Lear가

각각 진실된 사랑과 진실된 충성을 보여주는 Cordelia와의 부자간의 인연과 Kent와의 신하간의 관계를 끊는 상황으로까지 전개된다. Lear는 충성심의 상징인 Kent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들어라 이 불충한 놈아!
너의 충성에 요구하노니, 들어보아라!
너는 짐이 이제까지 감히 깨뜨려 본 적이 없는 맹세를 짐으로 하여금 깨뜨리게 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에 어긋나는 오만함으로 짐의 명령과 권한 사이에 방해를 놓았다.
이는 내 천성이나 지위로 보나 도저히 용납지 못할 일인즉, 자, 국왕의 신권이 어떠한지 맛을 좀 보아라.

Hear me, recreant!
On thine allegiance, hear me!
Since thou hast sought to make us break our vow,
Which we durst never yet, -and, with strain'd pride
To come betwixt our sentence and our power, -
Which nor our nature nor our place can bear, -
Our potency made good, take thy reward. (I. i. 165-171)

전제군주의 자만심이라는 거짓 외관에 휩싸인 나머지 충성심이 강한 Kent의 실체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의 외양만을 보고서 조화로운 질서 속에서 유지되어야 할 왕과 신하간의 관계를 끊는 질서파괴의 또 다른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Lear의 주 플롯의 질서파괴와 악의 발현과정은 조화로운 우주 질서 가운데 통치되는 왕국을 딸들에게 분할해 줌으로써 신의 대행자로서의 의무 관계를 파괴하고, 사랑의 정도를 물질적으로 주고받는 양에 의해 평가함으로써 천륜의 질서를 파괴하는데 그 원인이 기인하고 있다. 이 같은 외양과 실재에 대한 가치전도의 혼돈은 Lear가 각각 진실된 사랑과 진실된 충성을 보여주는 Cordelia와의 부자간의 인연과 Kent와의 신하간의 관계를 끊는 상황으로까지 전개되어 악의 발현을 제공하고 있다.

2. Gloucester

질서파괴로 인한 악의 발현의 예는 Gloucester에게도 찾아볼 수 있다. 정치적 질서를 파괴한 Lear의 악의 발현이 우주계의 무질서를 초래하였다면 Gloucester는 윤리적 질서를 파괴하여 인간계의 무질서를 초래한다. 극의 서두에서 Gloucester가 자신의 서자 Edmund를 두고 Kent와 주고받는 농담조의 대화에서 자신이 욕정에 굴복해서 서자인 Edmund를 낳았다고 고백한다.

글세, 이 애 어미가 내 씨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애 어민 배가 둥글게 부풀어올라 잠자리를 같이할 남편을
얻기도 전에 아들 하나를 요람에 똑 떨어 뜨렸답니다.

아이를 만들어 내느라 재미 깨나 봤지요. 그 일을 생각하면
사생아이긴 해도 이 앨 내 자식으로 인정해 줘야 겠지요.

Sir, this young fellow's mother could; whereupon
she grew round-wombed, and had, indeed, sir, a son
for her cradle ere she had a husband for her bed.

there was good sport at his making, and the
whoreson must be acknowledged. (I. i. 12-23)

Gloucester가 장년 시절의 육체적 쾌락을 좇아 부정하게 서자 Edmund를 얻게 됨으로써, Gloucester도 Lear처럼 극의 서두에서 질서파괴로 인한 악의 발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다. 자만심 때문에 국가 질서를 파괴하는 죄악을 범했다면, Gloucester는 욕욕 때문에 가정 질서를 파괴하는 죄악을 범한 것이다. 그리고 Gloucester가 이 두 아들에 대한 사랑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자와 서자의 구별을 무시하는 것이고, Ribner의 지적대로 당시대인들이 가족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장자 상속권을 중요하게 생각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은 기존 사회 질서를 무시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130)

Gloucester의 의심할 줄 모르는 단순함 때문에 권력과 재산을 획득하기 위해서 장자 Edgar를 모함하는 서자 Edmund에게 속아 Edgar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다. Gloucester는 Edmund가 형의 편지라고 내미는 것에 대해서 Edgar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믿어 버린다. 그는 볼 수 있는 두 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눈이 먼 것이다.

글로스터 무엇을 읽고 있었느냐?
 에드먼드 아무것도 읽지 않았습니다.
 글로스터 안 읽었어? 그렇다면 그렇게 깜짝 놀라 편지를 주머니 속에 넣을 필요가 없잖느냐? 아무것도 아니라면, 황급히 감출 이유가 없을 것이다. 어디 보자, 아무것도 아니라면 안경도 필요 없을 것이다.
 에드먼드 부탁드립니다, 용서하십시오. 이 편지는 형님한테서 온 것입니다. 아직 다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강 훑어본 바로는 읽지 않으시는 편이 나을 듯 합니다.

Gloucester What paper were you reading?
 Edmund Nothing, my Lord.
 Gloucester No? What needed then terrible dispatch of it into your pocket? The quality of nothing hath not such need to hide itself. Let's see: come; if it be nothing, I shall not need spectacles.
 Edmund I beseech you, sir, pardon me; it is a letter from my brother that I have not all o'er-read, and for so much as I have perused, I find it not fit for your o'er-looking. (I . ii. 31-39)

Gloucester는 Edmund가 호주머니 속으로 급히 감추는 편지를 보고서 자신의 눈이 잘 보이니까 안경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을 때는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후에 그의 육체적 눈이 멀고서야 내적 시야가 밝아지는 것과 대비된다. 그는 Edmund가 잘 알고 있듯이 “남을 잘 믿는 아버지 (A credulous father)” (I . ii. 179)로서 의심해야 될 사람을 믿고, 믿어야만 할 사람을 의심하고

있다. 마음의 눈이 먼 Gloucester는 Edmund가 꾸며낸 연극에 속아 장자 Edgar를 악당으로 생각하고 Edgar를 잡아오도록 명령한다.

—이토록 아플하게 몸바쳐 사랑하는 아비에게!
하늘이여, 땅이여! 에드먼드, 찾아내라.
그놈의 속셈을 알아내어 나에게 좀 알려다오.
네 생각대로 일을 꾸며봐라. 내 신분을 희생해서라도
이 일만은 진상을 캐보련다.

—to his father, that so tenderly and entirely
loves him. Heaven and earth! Edmund, seek him out;
wind me into him, I pray you; frame the business after
your own wisdom. I would unstate myself to be in a due
resolution. (I .ii. 96-100)

Gloucester도 Lear와 마찬가지로 성급한 결정을 내리며 지나치게 분노를 터뜨린다. Gloucester는 Edmund에게 기만당하여 장자인 Edgar의 참된 실체를 보지 못한 것이다. Edmund의 목표는 권력과 재산이지 아버지 Gloucester에 대한 사랑이 아니다. 그의 목표는 그가 말하는 다음 독백에 잘 나타나 있다.

자연이여, 그대는 나의 여신이다. 그대의 법칙에 나는 봉사하리라. 무엇 때문에 내가 성가신 관습에 복종하고, 꽤 까다로운 국민들이 권리를 빼앗아 가는 것을 허용해야 하느냐? 형보다 열두달 내지 열넉달 늦게 태어났다고 해서? 왜 서자란 말이냐? 무엇 때문에 비천하다는 것이지? 정실의 자식만큼이나 내 육체는 균형이 잡혀있고, 내 마음은 너그럽고, 그리고 용모도 근사하지 않은가? 왜 우리에게 비천하다고 낙인을 찍는 것일까? 천하다고, 서자라고? 천하다, 천하다고? 자연의 욕정에 의해 몰래 태어났으니까 기질이 더 강인하고 뛰어난 것은 당연하지. 재미없고, 김새고, 싫증난 잠자리에서 잠결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사이에 생긴 바보들 무리에 비하면 말이야? 자, 그렇다면

적자인 에드거, 네 재산은 내가 차지해야겠어

Thou, Nature, art my goddess; to thy law
My services are bound. Wherefore should I
Stand in the plague of custom, and permit
The curiosity of nations to deprive me,
For that I am some twelve or fourteen moonshines
Lag of a brother? Why bastard? Wherefore base?
When my dimensions are as well compact,
My mind as generous, and my shape as true,
As honest madam's issue? Why brand they us
With base? with baseness? bastardy? base, base?
Who in the lusty stealth of nature take
More composition and fierce quality
Than doth, within a dull, stale, tired bed,
Go to the creating a whole tribe of fops,
Got'tween asleep and wake? Well then,
Legitimate Edgar, I must have your land: (I . ii . 1-16)

Edmund가 받드는 그의 신은 바로 자기 자신의 힘이다. Edmund는 타고난 서자라는 역할과 분리된 자신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을 서자로 낙인찍으며 동시에 Lear를 타고난 왕으로 보장해주던 질서를 성가신 관습으로 거부하고 있다. Edmund에게 세계는 더 이상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왕과 신 하로, 적자와 서자로 위치를 부여받는 신의 섭리에 의해 질서 지워진 곳이 아니다. Edmund에게 인간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이다.

호색한의 탄복할만한 책임회피책이군. 자신의 음탕한 기질을 별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다니 말이야! 나의 아버지는 용자리 꼬리 밑에서 나의 어머니와 정을 통했고, 그리고 나는 큰곰자리 밑에서 탄생했다. 그러기에 내가 난폭하고 음탕한 것은 당연하지. 제기랄! 나는 지금의 내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을 거야. 내가 생겨날 때 설사 하늘에서 제일 순결한 별이 반짝이고 있었는데도 말이야.

An admirable evasion of whoremaster man, to lay his goatish disposition to the charge of a star! My father compounded with my mother under the dragon's tail, and my nativity was under

Ursa Major; so that it follows I am rough and lecherous. Sfoot!
I should have been that I am had the maidenliest star in the
firmament twinkled on my bastardizing. (I . ii . 126-133)

Edgar의 배은망덕을 비롯해서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일들을 최근의 일
식 탓으로 돌리고 있는 아버지 Gloucester를 Edmund가 비웃는 장면이다.
Edmund는 자신의 출세와 재산상속을 위해서 형제간의 의를 저버리고 간
사한 계략을 꾸며 Edgar를 곤경에 빠뜨린다. Edmund는 의심할 줄 모르는
Gloucester와 천성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칠 줄 모르는 Edgar를 속인 뒤 그
들의 등뒤에서 자신의 실상을 드러낸다.

남을 잘 믿는 아버지, 그리고 고상한 성격의 형님은
천성적으로 남을 해칠 줄을 몰라 남을 의심할 줄도 모르지.
그 우직성 덕에 내 책략은 착착 순조롭게 진행 될거다!
이 일의 결말이 눈에 환히 보이는구나.
혈통으로 영토를 얻지 못할 땐, 지혜를 짜서 얻어야 한다.
내가 제대로 꾸미기만 하면, 만사 어긋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A credulous father, and a brother noble,
Whose nature is so far from doing harms
That he suspects none; on whose foolish honesty
My practices ride easy! I see the business.
Let me, if not by birth, have lands by wit:
All with me's meet that I can fashion fit. (I . ii . 179-184)

Gloucester가 자연현상이란 개인의 이성과 의지에 관계없이 신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간주한 반면, Edmund는 신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써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나아가서 인간의 정신과 육체까지도 이성에 의해 조작될 수 있다는 사상적
견해를 지니고 있기에 자신의 영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
도 가리지 않는 마키아벨리즘적인 악의 양상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다.

Bradley의 지적대로 Edmund는 친족으로서, 친구로서 또는 신하로서의

의무와 함께 덕과 악을 지니고 있는 남녀들을 단지 자기 목적에 방해물 또는 조력물로만 여기고 있는 것이다. (250) Edmund는 권력과 재산을 얻기 위해서 형제간의 의무와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형과 아버지를 죽음의 위협으로까지 몰아넣으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천륜관계 까지도 파괴하여 작품의 전반적인 악의 세력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Gloucester의 부 플롯의 질서파괴와 악의 발현과정은 Gloucester가 장년 시절의 육체적 쾌락을 쫓아 부정하게 서자 Edmund를 얻게 됨으로써 윤리적 차원에서 가정 질서를 파괴하고, 서자 Edmund에게 속아 적자 Edgar를 부친살해 용의자로 수배함으로써 천륜의 윤리적 질서 속에서 유지되어야 할 부모와 자식간의 질서를 파괴하는데 그 원인이 기인하고 있다. 또한 Ribner의 지적대로 당시대인들의 장자 상속권을 중요하게 생각한 점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행위는 기존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도 여겨질 수 있는 것이다.



Ⅲ. 악의 실체

1. 에니멀리즘적 양상

Lear와 Gloucester의 질서파괴에 의한 악의 발현은 악의 실체를 등장시켜 이 작품에는 두 가지의 뚜렷한 악의 양상이 표출된다. 하나는 Lear의 광증을 초래하는 Goneril과 Regan의 악의 양상인 애니멀리즘이며, 다른 하나는 Gloucester의 실명을 초래하는 Edmund의 악의 양상인 마키아벨리즘이다. Bradley는 이 같은 악과 관련하여 이 작품에 나타난 선과 악을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과 이기주의적 관점에서 두 그룹을 나누고, (215) Wilson Knight와 Philip Edwards는 Lear의 위치와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선한 집단과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주어진 기회를 이용하는 악한 집단으로 나누며, (154) Danby는 인자한 자연과 악한 자연으로 나누고 있다. (20)

대체로 악으로 규정되어지는 인물들 사이에도 Goneril과 Regan은 Edmund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 극을 기독교 비극으로 본 Strampfer는 이 두 자매를 Edmund의 “종교적 무신론(doctrinaire atheism)”과 달리 야수로 규정한다. (368) 이 두 자매는 마치 먹이를 노리는 짐승과 같으며 먹이와 그 먹이를 향한 행동 사이에 전혀 주저함이 없다. 이들의 주저 없는 잔악함을 통해 한동안 극의 세계에서 악이 지배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Goneril은 1막에서 보여준 배은망덕에서 출발하여, Edmund와 간음을 저지르고 동생을 독살하며, Edmund와 함께 남편을 살해 할 음모를 계획한다. 그리고 그 모든 비행과 음모가 드러났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잔악하다.

언니인 Goneril과 동생인 Regan은 특히 인간의 도덕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전형적인 동물 또는 맹수로 볼 수 있다. 그녀들은 Edmund처럼 결코 어떤 주의(doctrine)를 논하는 일도 없이 오직 물질에 대한 욕망과 행동으로 일관한다. 이러한 그녀들의 동물적인 본성은 1막 4장에서 Lear가 Goneril을 괴물

에 비유하는 장면에서 극명하게 나타나 있다.

배은망덕한 놈. 화석처럼 차디찬 악마여,
네가 내 친자식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엔
바다의 괴물보다 더 무섭구나!

Ingratitude, thou marble-hearted fiend,
More hideous, when thou show'st thee in a child
Than the sea-monster! (I .iv. 252-254)

또한 2막 4장에서 Lear는 Goneril을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다.

아 리건! 네 언니는 내게 너무 가혹했다.
독수리같이 불효의 이빨을 드러내어 여기 이 가슴을 물어뜯었다.
(자기 가슴을 가리키며)
너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구나. 너는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졸렬한 방법으로 오 리건!

O Regan ! she hath tied
Sharp-tooth'd unkindness, like a vulture, here:
(Points to his heart.)
I can scarce speak to thee; thou'lt not believe
With how depriv'd a quality—— O Regan ! (II .iv. 133-136)

Lear왕은 Goneril을 독수리라고 비난하면서 그녀의 잔인성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4막 2장에서는 Albany도 그녀를 낳아 준 어버이와 그녀의 근원을 멸시하는 Goneril을 호랑이, 곰 또는 깊은 계곡에 숨어 있는 괴물로 묘사해 놓고 있다.

지혜롭고 선한 가르침도 악인에게는 악으로밖에 들리지 않지.
더러운 것들은 더러운 맛밖에는 몰라.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요?
딸들이 아니라 잔악한 호랑이들이 되어 당신들은 대체
무슨 짓을 했느냐 말이요?

.....
바다의 괴물처럼 되고 말 것이다.

Wisdom and goodness to the vile seem vile ;
 Filths savour but themselves. What have you done ?
 Tigers, not daughters, what have you perform'd ?

 Like monsters of the deep. (IV.ii. 38-49)

위의 인용에서 유추해 보면 잔악한 애니멀리즘적 악의 양상이 Goneril과 Regan을 통해서 문명사회에 깊숙이 만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Bradley는 Goneril의 동물적 속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Goneril is a kite: her ingratitude has a serpent's tooth: she has struck her father most serpent-like upon the very heart: her visage is wolfish: she has tied sharp-toothed unkindness like a vulture on her father's breast: for her husband she is a gilded serpent: to Gloucester her cruelty seems to have the fangs of a boar. (218)

일반적으로 인간의 악은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영향력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성이 바로 도덕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Goneril과 Regan에게는 바로 이러한 인간성이 없기 때문에 그녀들은 악의 심연으로 거침없이 빠져들게 된다. Lear에 대한 그녀들의 학대와 불경스런 행동은 2막 4장에서 그 절정을 이루는데 여기서 두 딸의 배은망덕하고 짐승 같은 악의 양상인 애니멀리즘은 급기야 Lear를 미치게 만들고 만다. Lear는 Goneril과 Regan이 자신의 종자 수를 절반으로 줄여 버리고 자기를 학대했다는 점등을 들어 그녀들의 불효를 동물과 같은 행동에 분개하면서 이리나 올빼미만도 못한 인간으로 생각하며 아래와 같이 폭로하고 있다.

네 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시종을 50명으로 줄이고
 고네릴에게 되돌아가느니 차라리 공중에 있는 모든 것과
 적이 되어 비바람을 뒤집어쓰는 편이 낫겠다. 차라리
 이리와 올빼미의 벗이 되고 가난의 괴로움을 맛보는 편이 낫겠다.

Return to her ? and fifty men dismiss'd !
 No, rather I abjure all roofs, and choose

To wage against the enmity o' the air;
To be a comrade with the wolf and owl, (II. iv. 207-210)

이러한 Goneril과 Regan의 악의 양상인 애니멀리즘이 Lear에게 얼마나 지독한 고통을 주는지는 3막 4장이 시작되면서부터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광야에서 자신을 쫓아 낸 두 딸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는 Lear의 대사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이같이 캄캄한 밤에
나를 들판으로 내쫓다니! 억수같이 퍼붓는 빗속에서도
내 참아낼 것이다. 이런 밤에도! 오, 리건, 고네릴!
나이 많고 자애로운 이 아버를 - 아낌없이 모든 것을 양도해
주었던만. 아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미칠 것 같구나,
그 생각은 말자. 그런 생각만은 그만두자.

In such a night
To shut me out ! Pour on; I will endure.
In such a night as this ! O Regan, Goneril !
Your old kind father, whose frank heart gave all,
O! that way madness lies; let me shun that;
No more of that. (III. iv. 17-22)

두 딸의 배은망덕하고 짐승 같은 악의 양상인 애니멀리즘은 급기야 Lear로 하여금 미치게 만드는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Lear가 두 딸들에게 퍼붓는 욕설 가운데 동물적 이미저리가 많이 거론된 것은 그들의 동물적 양상을 암시하고 있는 예이다. 이 외에도 그는 두 딸 Goneril과 Regan의 배은망덕을 “바다의 괴물 (sea-monster)” (I. iv. 254)처럼 무시무시한 존재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Goneril을 “싫악한 솔개 (detested kite)” (I. iv. 256)로, Goneril과 Regan을 “여우들 (she foxes)” (III. vi. 22)로, 세상의 여자들을 “괴물들 (monsters)” (IV. vii. 102)로 간주하고 있으며, Goneril은 “괴물 (Be-monster)” (IV. ii. 63)의 심성을 지닌 인물로, Goneril과 Regan은 “딸들이 아니라 호랑이들 (tigers, not daughters)” (IV. ii. 40)로, 그리고 “개의 심성 (dog-hearted)” (IV. iii. 45)을 지닌 인간들로

간주하고 있다. Goneril과 Regan의 악의 양상인 애니멀리즘을 단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예들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King Lear*가 얼마나 인간이 지닌 동물적 속성에 근거를 두고 있나를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Harbage는 *King Lear*에는 이같은 동물적 악의 양상이 등장인물 상호간에 작용함으로써 대단히 무시무시한 차원으로 비극적 갈등이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In *King Lear* it is a combination of these things with others, its dimensions truly terrifying. But as the power of evil grows, so also does the power of good, which also appears in many guises. As these plays take hold of us, we feel a strengthening of our spiritual sinews. (302)

Regan의 사악함도 Goneril에 비해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 3막 6장에 등장하는 Regan은 Cornwall과 결탁하여 Lear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계획하는데 이 점은 Gloucester의 대사 속에 잘 나타나 있다.

국왕을 안아 일으키시오.
 암살의 음모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소.
 들것을 준비해 놓았소. 국왕을 거기 태워서
 도버까지 급히 달리시오. 그곳에 닿으면 환영과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요. 어서 국왕을 안고 오시오.
 30분만 늦어도 국왕의 목숨은 물론이거니와, 당신의 목숨과
 그를 감싸는 모든 사람의 목숨까지 위태로울 거요.

Good friend, I prithee, take him in thy arms;
 I have o'erheard a plot of death upon him.
 There is a litter ready; lay him in't,
 And drive toward Dover, friend, where thou shalt meet
 Both welcome and protection. Take up thy master:
 If thou shouldst dally half an hour, his life,
 With thine, all that offer to defend him,
 Stand in assured Loss. (III. vi. 87-94)

Regan의 극악무도한 태도와 행동은 부친을 살해하려는 음모와 더불어,

Cornwall에게 Gloucester의 두 눈알을 뽑아 버리라고 명령하는 3막 7장에서 그 절정에 이른다. Regan은 그의 목을 당장 베어버리라고 지시한다.

리건 체포하는 즉시 교수형에 처하라.
고네릴 그의 두 눈을 뽑아버려라.

Regan Hang him instantly.
Goneril Pluck out his eyes. (III.vii. 4-5)

Regan의 잔인성은 그녀의 하인에게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을 보고 놀릴 테니, 다른 쪽 눈마저 빼버리세요. (One side will mock another; th’other too.)” (III.vii. 69.)라고 지시하는 그녀의 대사 속에 확연히 드러난다.

그런데 Evans는 Regan이 Goneril보다 훨씬 더 잔인한 동물적 심성을 지닌 인물로 간주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Goneril, at first, is cruel by default rather than apparent will. Her default is a lack of true love and a lack of intelligence. Her letter to Regan is her chief actual crime. (280)

4막 5장에 이르면 Goneril과 Regan의 악의 양상인 애니멀리즘은 약간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된다. 이 악의 발전 양상은 Edmund를 차지하기 위해서 Goneril과 Regan이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기 때문이다. 5막 1장에 이르면 Regan은 Edmund에게 절대로 언니와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를 내린다.

리건 하지만 마음에 걸려요. 언니와 함께 붙어 다니면서 서로 부둥켜안는 등 부부만이 할 수 있는 짓을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에드먼드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명예를 걸고.

리건 나는 결코 언니가 그런 짓을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에드먼드님, 언니와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세요.

Regan I am doubtful that you have been conjunct
 And bosom'd with her, as far as we call hers.

Edmund No, by mine honour, Madam.
Regan I never shall endure her: dear my Lord,
Be not familiar with her. (V. i. 12-16)

여기서 Edmund를 사이에 둔 두 자매의 질투는 절정에 달하며, 이들에게는 비극적인 죽음의 사슬이 서서히 드리워지는 상황이 전개된다. 마침내 5막 3장에서, Goneril은 동생 Regan을 독살한 후에 자신은 자살의 길을 택했다는 사실이 gentleman의 대사를 통해서 밝혀진다.

시중 오,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알바니 누가? 빨리 말하라.
시중 각하의 부인이요, 공작님. 각하의 부인 말씀이에요.
공작부인께서는 여동생을 독살했노라고 자백하셨습니다.

Gentleman O ! she's dead.
Albany Who dead ? speak, man.
Gentleman Your lady, sir, your lady: and her sister
By her is poison'd; she confesses it. (V. iii. 223-226)

결국 이 장면에서 Goneril과 Regan의 애니멀리즘적 악의 양상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유대관계의 파괴를 거쳐 사회 구성원 사이의 유대관계까지 파괴하고, 더 나아가 인간 본성과 조화로운 우주 질서를 파괴하는 양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도자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두 자매가 물질적 욕망과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와 열정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천사적 본성을 상실한 타락된 인간, 즉 동물에로의 전이를 암시하고 있는 예이다. Lear가 그들에게 퍼붓는 욕설 가운데 동물 이미저리가 많이 거론되는 것은 그들의 야만성, 추악성등 인간의 동물적 본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잔인한 면을 지닌 애니멀리즘적 악의 양상은 이 극의 어둠을 더욱 짙게 하고 있고, 이 작품의 비극적 효과를 더욱 강하게 표출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2. 마키아벨리즘적 양상

Edmund의 악의 본성을 고찰해 보려면, 그 근원을 마키아벨리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Florence의 역사가이며 정치사상가인 Machiavelli의 정치관은 Shakespeare의 여러 작품 속에 반영되어 있다. 특히 Shakespeare의 사극의 주인공들과 *Othello*의 Iago, 그리고 이 작품의 Edmund는 마키아벨리즘이 잘 반영된 인물인 것이다.

Elizabeth 1세 여왕 시대에는 박애와 자비를 강조한 기독교 신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출현한 마키아벨리즘의 사악한 정치이론은 기존의 전통주의자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이론이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Machiavelli가 사악함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Ludowyk도 이 점을 아래와 같이 정립하고 있다.

To the traditionalists of the time this was a shocking doctrine, although Machiavelli was only stating as a realist what he had observed in the successful careers of the military leaders of his age. To the Elizabethans Machiavelli became the symbol of everything devilish. (20)

Machiavelli는 인간의 사악함을 철두철미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사악한 인간성은 변하지 않으며, 인간의 의식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서는 인간이란 결국 공포와 탐욕에 지배되는 이성 이하의 동물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야심을 가진 군주가 국민을 동물처럼 다루기 위해서는 그 자신도 사자나 여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임명방 112-115) 기독교가 이성에 의한 자의적인 것이라면, 마키아벨리즘은 강요에 의한 타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만든 법은 신의 법에 근거를 두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Machiavelli는 법이란 통치자가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므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폐지할 수도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영원한 법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마키아벨리즘에는 신의 섭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마키아벨리즘적 악의 양상에 바탕을 둔 철저한 무신론자로서의 전형적인 악의 인물이 바로 Edmund 이다. 그의 목표는 권력과 재산이지만, 그의 종말은 무질서 바로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Bradley는 Edmund의 이와 같은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Edmund is an adventurer pure and simple. He acts in pursuance of a purpose, and, if he has any affections or dislikes, ignores them. He is determine to make his way, first to his brother's lands, then — as the prospect widens — to the crown; and he regards men and women, with their virtues and vices, together with the bonds of kinship, friendship, or allegiance, merely as hindrances or helps to his end. (250)

Goneril이나 Regan과는 달리, Edmund는 신뿐만 아니라 전통적이고 조직적인 우주에 대해서 철저한 무신론자로서의 자세를 취한다. 신을 부정하고 우주를 부정하는 태도는 Elizabeth 시대에서는 완전히 이단이었다. Edmund의 “이론적 무신론(doctrinaire atheism)”은 인간과 사회와 자연 사이의 유대 관계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Strampfer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This doctrinaire atheism involves an issue as basic in *King Lear* as that of a retributive justice, and that is the bond between man, society, and nature. Here, there is no plethora of attitudes, but two positions, essentially, that of Cordelia, and that of Edmund. (368)

Edmund는 보편적인 자연의 개념과는 반대되는 자신의 이론적 무신론적 마키아벨리즘을 신봉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의 정신적 자세는 그의 첫 독백에서 잘 표출되어 있다. (I.ii. 1-6)

Cordelia와 Albany가 이해하는 인간 관계의 굴레는 이질적이고 인위적인 속박인데 반하여, Edmund의 경우는 그 반대이다. 그는 계급제도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으나 그 제도 속에서 성장하지는 않는다. 그에게는 제도 자체

가 생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Edmund가 신봉하는 계급제도는 동물적 활력을 가진 계급제도이다. Strampfer도 Edmund의 이러한 태도를 다음과 같이 뒷받침하고 있다.

Edmund recognizes a hierarchy, but rather than growing out of society, this hierarchy goes wholly against its grain. This hierarchy of animal vitality, by which “the lusty stealth of nature,” even in the act of adultery, creates a more worthy issue than “dull, stale, tired bed” of marriage. (369)

사실 Edmund는 1막 2장에서 자연만이 그를 수호해 주는 신이라고 주장하여 마치 그가 신을 믿는 것 같이 보이나, 무신론자로서의 그의 본성은 극이 진행됨에 따라 쉽게 드러나고 만다. 이러한 Edmund의 심성을 Bradley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He is the product of Nature — of a natural appetite asserting itself against the social order; and he has no recognized place within this order. So he devotes himself to Nature, whose law is that of the stronger, and who does not recognize those moral obligations which exist only by convention, — by ‘custom’ or ‘the curiosity of nations’. (251)

사악함에 있어 Edmund는 *Othello*의 Iago와 이복 형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철두철미한 마키아벨리즘의 화신이다. 자신의 출세와 재산 축적을 위해서 Edmund는 인간성이나 혈육간의 정을 버린지 오래다. 아니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악의 화신이었던 것이다. 이 같은 Edmund의 악의 심성에 관해서 Granville-Barker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Edmund is, in wickedness, half-brother to Iago. Having no such great nature as Othello’s to work on, Shakespeare has no need of such transcendent villainy; and he lessens and vulgarizes his man by giving him one of those excuses for

foul play against the world which a knave likes to find as a point of departure. (1974, 316)

이같이 Edmund는 무신론자로서 마키아벨리즘적 악의 심연으로 빠져 들어가는 양상을 띤다. Gloucester의 사생아인 Edmund는 1막 2장의 독백에서 그의 극악무도한 계교를 암시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서출의 입장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을 표시하고는 그의 형인 적자 Edgar의 유산상속을 가로챌 교묘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꾸민다.

정실 자식 에드거야, 네 영토를 내가 먹어주마.
아버님의 애정도 사생아인 에드먼드나 정실 자식 에드거에
대해서나 별 차 이가 없다. '정실'이라는 말은 훌륭한 단어지!

Legitimate Edgar, I must have your land:
Our father's love is to the bastard Edmund
As to the legitimate. Fine word, 'legitimate!' (I . ii . 16-18)

자연이 그를 수호하는 여신임을 외쳐대던 Edmund는 Edgar의 유산상속을 가로챌 계교를 꾸며 놓고 세상의 모든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기도까지 올리나 그것도 잠시 뿐, 아버지 Gloucester가 퇴장하고 나서 그는 모든 점성술의 영향까지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마는 철저한 무신론자로 급변해 버린다. 이러한 그의 자세는 다음의 그의 대사에 뚜렷이 부각되어 나타나 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꼴이냐.
불행이 닥쳐올 때에는 대개 자업자득인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재난을 태양이나 달이나 별의 탓으로만 돌리다니.
마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악당이 되고,
천체에 강요되어 바보가 되고,

This is excellent foppery of the world,
that, when we are sick in fortune, -often the surfeit
of our own behaviour, -we make guilty of our disasters
the sun, the moon, and stars; as if we were villains
by necessity, fools by heavenly compulsion, (I . ii . 118-122)

그는 간사하고 음흉한 계교를 꾸며 Edgar를 곤경에 빠뜨린 후 흡족한 미소를 짓는다. 그는 쉽게 속아넘어가는 아버지와 점잖은 형을 간사하게 속였던 것이다. 이러한 면이 바로 마키아벨리즘적인 그의 태도이다. 자신 이외의 것은 절대로 믿지 않는다고 하던 Edmund는 Edgar에게 점성술은 믿는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이 대사 속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내적 악의 전형적인 여러 양상이 잘 표현되어 있다.

거기 씌어 있는 예언의 결과가 영 심상치 않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식과 부모간의 불화,
변사, 기근, 오래된 우정의 절교,
나라안의 분열, 공갈, 모략,
국왕과 귀족에 대한

I promise you the effects he writes of succeed unhappily;
as of unnaturalness between the child and the parent;
death, dearth, dissolutions of ancient amities;
divisions in state; menaces and maledictions
against King and nobles; (I . ii . 143-146)

2막 1장에서 Edmund는 아버지 Gloucester가 등장하자 Edgar를 속여 일부러 싸움을 하는 체 하고는 형을 도망시키고, 자신의 칼로 자기 팔에 상처를 내는 등 지독하고도 간사한 마키아벨리즘적 인물로 전락해 간다.

불을 밝혀라. 어어이, 여기다! 안녕히 가세요.
피가 나면 내가 장렬한 싸움을 했다는 평을 들을 것이다.
(자신의 한쪽 팔에 상처를 낸다)

Fly, brother. Torches ! torches ! So farewell.
Some blood drawn on me beget opinion
(Wounds his arm.) (II . i . 32-33)

그리고 3막 3장에서 Edmund는 그의 아버지인 Gloucester를 Cornwall에게 밀고해 버림으로써,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부모의 정도 완전히 무시

해 버리는 전형적인 마키아벨리즘적 면모를 유감 없이 보여준다.

아버지에게 금지된 이 충성스런 일을 공작은
곧 알게 될 것이며, 그 편지에 대해서도 곧 알려질 것이다.
이것은 상당한 공로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잃게 되는 모든 재산을 내가 차지해야지.
노인이 쓰러질 때 젊은이는 일어나는 법이거든.

This courtesy, forbid thee, shall the duke
Instantly know; and of that letter too:
This seems a fair deserving, and must draw me
That which my father loses; no less than all:
The younger rises when the old doth fall. (III.iii. 21-25)

그러나 Edmund의 극단적인 악의 양상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장면은 3막 5장이다. 여기서 그는 아버지를 밀고한 대가로 아버지의 작위와 토지를 물려받는다. 또한 자신의 혈기왕성한 젊음과 외모를 이용하여 Goneril로부터 상당한 호감을 산다.

이 키스가 입이 있어 말을 한다면
당신의 용기를 북돋아 줄 거예요.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안녕.

this kiss, if it durst speak,
Would stretch thy spirits up into the air.
Conceive, and fare thee well. (IV.ii. 23-25)

Edmund는 드디어 5막 1장에서 Cordelia와 Lear를 살해할 계획을 분명히 하며, Regan과 Goneril 사이를 왕래하며 간사한 애정 행각을 벌인다. 이러한 그의 행위는 권모술수에 능한 악의 양상인 마키아벨리즘의 표본이다.

나는 두 자매 모두에게 사랑을 맹세했다.
두 자매가 서로 질투하는 모습은 마치 독사에게 물린 적이 있는
사람이 독사를 미워하는 것과 같구나. 둘 중에 누구를 골라잡을까?
둘 다? 하나만? 아니면 둘 다 그만 둘까? 둘 다 살아 있으면

어느 쪽도 즐길 수 없어. 과부를 택하면

To both these sisters have I sworn my love;
Each jealous of the other, as the stung
Are of the adder. Which of them shall I take ?
Both ? one ? or neither ? Neither can be enjoy'd
If both remain alive: to take the window (V. i. 55-59)

Lear와 Cordelia에게 독약을 먹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Edmund는 마침내 5막 3장에서 Edgar의 칼에 맞아 죽고 만다. 자신의 권력과 욕망을 위해서는 인간성과 도덕성까지도 철저히 무시해 온 그는 마침내 자신이 저질러 온 악의 대가를 죽음으로 받게 된다.

*King Lear*에 표출되어 있는 악의 양상은, Shakespeare의 다른 비극에서 표현된 악의 양상과는 그 정도가 매우 다른, 뚜렷한 두 가지 악의 양상이 표출되어 있다. 이 작품 속의 악의 세력들은 그들의 흉악한 애니멀리즘과 마키아벨리즘 때문에 대단히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인물들이며, 그들에게는 선이라는 개념이 조금도 섞여 있지 않다. 애니멀리즘의 전형인 Goneril이나 Regan과 마찬가지로 Edmund도 전형적인 악의 인물이며, 그의 마키아벨리즘적인 악의 이미지는 그가 죽음에 도달하는 순간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극한 애니멀리즘과 마키아벨리즘이라는 악의 양상들이, *King Lear*를 다른 어느 작품보다도 그 비극적 효과를 강하게 표출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IV. 고통과 자아인식

1. 광증속의 이성

*King Lear*의 질서파괴로 인한 악의 발현과 악의 실체를 살펴본 결과, Lear와 Gloucester의 악의 발현은 제 각각 질서파괴로 인한 범죄에 그 원인이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악의 발현과 질서파괴의 행위는 Lear의 경우, 조화로운 우주 질서 가운데 통치되는 왕국을 스스로 분리시킴으로써 국가의 정치적 질서파괴를 초래했다. 그 결과 Lear는 Goneril과 Regan의 악의 양상인 애니멀리즘으로 인하여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광야로 뛰쳐나가 결국 미치게되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된다. 반면에 Gloucester의 경우에는 천륜의 윤리적 질서 속에서 유지되어야 할 부모와 자식간의 인간세계의 질서파괴를 초래한 결과, Edmund의 악의 양상인 마키아벨리즘에 의해 눈이 실명되는 육체적 고통을 당하게 된다.

Shakespeare는 이러한 Lear의 정신적 고통을 상징하는 광증을 주 플롯의 주제로, 그리고 Gloucester의 육체적 고통을 상징하는 실명을 부 플롯의 주제로 하는 이중 구조를 부여하여 극 속에서 그것들이 통합되면서 상승적인 극적 효과를 가져오게 하고 있다. 말하자면 두 주인공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거쳐 새로운 차원의 자아인식의 종착역에 도달케 하는데 있어서 정화적 고통과정의 핵심이 되는 개념으로 광증과 실명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Lear의 경우, 1막 1장에서 세 딸에게 왕국을 분할해 주고 여생을 그들의 보살핌 속에서 편히 보내고자, “국가의 통치권이며 조세권, 기타의 집행권 (The sway, revenue, execution of the rest)” (I. i. 136)등 왕으로서의 실무와 실권은 넘겨주면서 “왕이라는 칭호와 그에 따르는 명예 (The name and all the addition to a king)” (I. i. 135)는 고수하겠다고 밝힌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몫을 준다고 말함으로써, 사랑의 정도를 물질적으로 주고받는 양에 의해 평가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

(I. i. 50-56) 이 장면에서 Lear는 전제군주의 자만심이라는 거짓 외관에 휩싸인 나머지 악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하여 외양과 실재를 분별치 못하고서, Cordelia와 Kent의 진실한 사랑과 충성을 거부하게 되는 가치전도의 혼돈 속으로 빠져든다. 결국 조화로운 우주 질서 가운데 통치되는 왕국을 스스로 분리시킴으로써, 국가의 정치적 질서파괴로 인한 Goneril과 Regan의 악의 양상인 애니멀리즘을 초래한 것이다. 그 결과 Lear는 Goneril과 Regan의 악에 의해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광야로 뛰쳐나가 결국 미치게되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된다. 이러한 Lear의 광증의 전개 과정에 대해, Muir는 Lear가 미치게 되는 것을 일련의 외부적 충격으로 보고 4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첫째, 그가 노년을 의지하고자 했던 가장 사랑하는 Cordelia의 거절에 의해서이고, 둘째, Goneril의 공격, 셋째, Lear의 사신 Kent가 차꼬에 채워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넷째는 Regan의 거절로 보고 있다. (128) 즉 거짓 외관에 휩싸인 나머지 외양과 실재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하여 진실과 거짓을 분별치 못하는 가치전도의 혼돈된 정신적 상태에서 Muir의 지적대로 일련의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Lear는 Goneril과 Regan의 잔악한 악에 의해 모든 인간적·사회적·자연적 세계로부터 소외되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폭풍이 휘몰아치는 광야로 뛰쳐나가 고통을 겪게되는 것이다.

Lear는 악한 딸들로부터 참을 수 없는 학대와 모욕을 당하면서,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펼쳐지는 현실 속에서 자신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생각하고는, "하늘이여, 인내를 주소서. 제겐 인내가 필요합니다! (You heavens, give me that patience, patience I need!)" (II. iv. 271)라고 기도한다. 그리고는 자신의 인내를 시험하기라도 하듯이 다음과 같이 울 부르짖으며 폭풍이 휘몰아치는 광야로 뛰쳐나간다.

너희들은 내가 눈물을 흘릴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 나는 절대로 울지 않을 것이다.
울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지만 이 심장이
천 갈래 만 갈래로 찢겨지기 전에는
울지 않으려다. 아, 바보광대야! 내가 미칠 것만 같구나.

You think I'll weep;

No, I'll not weep:

I have full cause of weeping, but this heart

Shall break into a hundred thousand flaws

Or ere I'll weep. O fool! I shall go mad. (II. iv. 282-286)

Goneril과 Regan의 악한 딸들의 배은망덕과 잔인함을 견디다 못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폭풍의 광야로 뛰쳐나온 뒤, 그는 대자연의 폭풍 속에서 자신의 마음의 폭풍을 터뜨리며 광적으로 견딜 수 없는 절망적인 심정을 다음과 같이 대자연에 호소한다.

바람아 불어라, 너의 뺨이 터지도록! 세차게! 불어라!
너 폭풍우여, 쏟아져라. 너희는 물길을 내뿜어 뽕족탑을 물에 적시고,
탑 위의 바람개비를 물 속에 잠기게 하라! 천둥의 뜻을 급히 전하는
유황의 불이여, 참나무를 쪼개는 벼락의 선구자인 번개여,
너희는 이 백발을 태워라! 천지를 진동시키는 천둥이여,
이 세상 모든 아기 가진 여자들의 둥근 배를 쳐 납작하게 하라!
창조의 모태를 부숴라! 은혜도 모르는 인간을 태어나게 하는
모든 종자들은 없애버려라!

Blow, winds, and crack your cheeks! rage! blow!

You cataracts and hurricanoes, spout

Till you have drench'd our steeples, drown'd the cocks!

You sulphurous and thought-executing fores,

Vaunt-couriers to oak-cleaving thunderbolts,

Sing my white head! And thou, all-shaking thunder,

Strike flat the thick rotundity o' the world !

Crack nature's moulds, all germens spill at once

That make ingrateful man ! (III. ii. 1-9)

이 장면에서 Lear는 자신 내면의 분노를 더 이상 견뎌낼 수 없는 광증 상태에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모든 것을 양도해준 딸들을 모두 등지고 시종기사도 없이 울 데 갈데 없는 그가 악한 딸들과 온 세상을 저주하며 광분하는 그의 처절한 모습은, 위대한 자연과 대비해서 한 인간의 무력함을 드러낸다고도 볼 수 있다. 대자연에게 극악한 딸들의 냉대와 배은

망덕을 발견하고서 은혜를 모르는 물질의 종자를 파괴하여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Lear는 딸들의 배은망덕과 자신의 과오 및 실존에 대한 자각에서 오는 갈등으로 절규하며 고통스러워한다.

실컷 으르렁거리라! 불꽃을 토하라! 비야 쏟아져라!
비도, 바람도, 천둥도, 번개도 내 딸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흉악한 두 딸년의 편이 되어
이 늙은이의 백발을 목표로 천군만마를 이끌고
공격을 가해오니, 나는 너희를 비굴한 사신들이라고
부르겠다. 아! 아! 정말로 원망스럽구나!

Rumble thy bellyful ! Spit, fire ! spout, rain !
Nor rain, wind, thunder, fire, are my daughters:
But yet I call you servile ministers,
That have with two pernicious daughters join'd
Your high-engender'd battles 'gainst a head
So old and white as this. O ! O ! 'tis foul. (III. ii. 14-24)

Lear는 왕이라는 칭호와 그에 따르는 명예를 고수하려던 외적 자존심이 무너지고, 폭풍우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이제 막 폭발직전의 광증의 상태에 이른 것이다. 자연계에 휘몰아치는 폭풍우는 Lear의 마음 속에 이는 내면의 폭풍우라고도 말할 수 있다. 즉 광야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폭풍우는, 외적인 측면에서 Lear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에, 내적인 측면에서는 Lear의 혼란된 심리적 갈등과 분열상태를 반영시킨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폭풍우는 소우주로서의 인간의 내적·외적 갈등과 분열이 대우주로 볼 수 있는 자연계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소우주 (little world of man)” (III. i. 10)을 암시하는 소우주 사상과, 왕국의 분열에서 야기된 천체의 무질서와 혼란을 반영하는 대우주 사상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 폭풍우도 바로 소우주인 Lear의 가슴속의 갈등과 분열을 자연에 구체적으로 반영시킨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점에 대해 Frye는 자연계와 Lear의

심리적 유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The effectiveness of the storm as part of the play is due in part to the exploitation of this analogy. Lear uses storm images to describe the distraction of his mind: conversely, though the physical violence of the storm is vividly insisted on. The physical turmoil is time and again described in terms. ... More often the descriptive terms allude to human thoughts and passions. ... In this way the storm becomes the image of the tempest in the mind of Lear. (86)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추위 속에서 Lear가 겪는 분노, 갈등, 자책의 정신적 고통은 그로 하여금 “내 정신이 돌기 시작한다 (My wits begin to turn)” (III. ii. 67)라고 털어놓게 함으로써 Lear를 광증 상태로 몰고 간다. Heilman은 이 극에 있어서 Lear의 광증은 극의 의미의 핵심부에 자리한다고 보았다.

Lear's madness overshadows the play — because it is shocking and terrible, of course, but in a more fundamental manner because it is at the center of the meaning of the play. (173)

결국 Lear는 외양과 실재를 구별하지 못하고 조화로운 우주 질서 가운데 통치되는 왕국을 스스로 분리시킴으로써, 질서 파괴로 인한 Goneril과 Regan의 악의 양상인 애니멀리즘을 초래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고통스러워한다. Lear는 광야로 뛰쳐나왔을 때 여전히 복수하려는 욕망과 강한 고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맹렬하게 불어대는 폭풍우와 천둥은 Lear의 이러한 마음을 압도하여 Lear로 하여금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만든다. 이 점에 대해 Traversi는 이 폭풍우 장면을 Lear의 재생에 대한 준비 과정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In the second stage, which covers the central part of the play, personal disorder finds in the tempest to which the protagonists are exposed a symbol that at once reflects and

transcends it; the elements at war, besides corresponding to the conflict in Lear's distraught person, act through the intense suffering which they impose upon him with the force of a self-revelation to become the necessary prelude to a species of rebirth. (1969, 142)

Lear는 모든 것을 양도해준 딸들을 모두 등지고 시종기사도 없이 올 데 갈데 없는 이렇게 처절한 지경에 이르러서도, 자아를 완전히 상실하지 않고 광란적인 폭풍 속에서 오히려 이를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와 자아를 되찾으려는 징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의식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한다.

나는 너희들의 노예가 되어 여기 서 있다.
불쌍하고 가냘프고 허약하고 멸시받는 늙은이의 몸으로.

here I stand, your slave,
A poor, infirm, weak, and despis'd old man. (III. ii. 19-20)

이 대사에서 노구의 Lear가 맨몸으로 폭풍우에 맞서고 있는 모습은, 곧 자신이 질문했던 “내가 누구인지 말해줄 사람 없느냐? (Who is it that can tell me who I am?)” (I. iv. 223)라는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는 듯한 장면이기도 하다.

폭풍우의 시련을 겪고 있는 Lear는 정신적으로 많은 성장을 한다. 왕의 명령이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에게, 폭풍우는 Lear의 명령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 바로 여기에서 Lear는 깨달음을 얻는다. Lear는 4막 6장에서 자기 주위의 사람들이 아첨꾼들이었고, 자신도 다른 사람과 같은 평범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곳이 폭풍우 속이었다고 밝힌다. 즉, 그곳은 Lear로 하여금 진정한 자아인식에 이르게 한 뒤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곳이다. 광야의 움막은 Lear가 폭풍우로부터 피난처와 안전을 발견한 곳이며, 또한 순수한 인간성을 체득한 곳이기도 하다. 반면, 1막의 Lear의 궁정은 그의 개인적인 권력의 장소였다. 그 곳에서는 인간성이 공유되지 않았으며, Lear

의 오만과 아집에 의해서 움직여지던 곳이었다. 그러나 광야의 움막은 이해 관계를 초월한 집단의 장소이며, 헐벗은 거지들이 함께 모여 사는 인간성이 공유되는 사회인 것이다. 자신이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이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인간임을 깨달은 것이다.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동정심도 느끼게 되며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점차 사라져 간다. Lear에게 가장 유능한 선생님은 바로 시련과 고통이고, 특히 폭풍우는 그의 가정교사 역할을 했다. (Duthie and Wilson 37) Lear는 웅대한 대 자연의 위력 앞에 인간은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연의 원초적이고 적나라한 모습에서 인생의 적나라한 모습도 투사시켜 볼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인간의 위선과 악을 철저히 응시하게 된다. 1막 1장에서 어리석고 이기적 이었던 Lear는, 허식과 오만을 서서히 벗어버리고 상실했던 인간성을 회복해 간다.

광야의 움막 앞에서 Lear는 처음으로 타인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나타내는데, 자신이 추울 때 Fool도 추위를 느낀다는 것을 인식한다.

내 정신이 돌기 시작한다.
이봐, 애야, 넌 어때냐? 추우냐? 나도 춥다.

My wits begin to turn
Come on, my boy. How dost. my boy? Art cold? (III.ii. 67-68)

또한 Lear는 자기 때문에 수고하고 괴로움을 겪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기까지 한다.

불쌍한 바보광대 녀석아, 나는 내 마음 한구석에서
너를 가없이 여기는 미안함을 느낀다.

Poor fool and knave, I have one part in my heart
That's sorry yet for thee. (III.ii. 72-73)

Lear의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하자 그 틈새로 진실이 뚫고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제부터 Lear는 타인의 고통도 인식하기 시작한다. 이 같은 Lear의 태도 변화는 자신의 대자연 앞에서의 나약함과 무기력한 실상을 절실히 깨

달고, 추위에 떨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나타내는 마음의 변화이다. Lear는 폭풍우 속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점차 심리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이제 그는 가난의 소중함도 깨닫게 된다.

필수품을 만들어내는 일은 참 신기한 일이다.
더러운 물건으로 귀중품을 만들어내니 말이야.

The art of our necessities is strange,
That can make vile things precious. (III. ii. 70-71)

3막 4장의 폭풍우 장면에서도, Kent가 Lear에게 움막 안으로 들어갈 것을 권유하자, 도리어 Kent에게 “너나 들어가거라. 너 자신이나 편하게 지내라 (Prithee, go in thyself; seek thine own ease:)” (III. iv. 23)라고 말하고, Fool에게는 “애야, 안으로 먼저 들어가거라 (In, boy: go first.)” (III. iv. 26)라고 말하면서, 궁핍하고 가련한 자들에 대한 동정과 연민이 다시 나타난다. Lear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제 헐벗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올린다. 즉, 이 같은 모습은 Lear 자신도 이제는 헐벗고 불쌍한 거지가 되는 정화적 고통을 맞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난하고 헐벗은 딱한 사람들아, 너희들이 어디에 있던
이 몰인정한 폭풍우를 맞으면서도
머리 하나 누일 곳 없이, 굶주린 배를 졸라매고
구멍이 송송이 뚫린 누더기를 걸친 채
그대로 밤낮 없이 견디려는고? 나는 그동안 이런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 영화를 누리는 자들아, 이 일을 약으로 삼으라.
비바람에 몸을 드러내고 가난한 자의 비통함을 깨달아라.
남은 것이 있거든 이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하여 하느님의 공평함을 보여주어라.

Poor naked wretches, wheresoe'er you are,
That bide the pelting of this pitiless storm,
How shall your houseless heads and unfed sides,
Your loop'd and window'd raggedness, defend you
From seasons such as these? O! I have ta'en

Too little care of this. Take physic, pomp;
 Expose thyself to feel what wretches feel,
 That thou mayst shake the superflux to them,
 And show the heavens more just. (III.iv. 28-36)

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의 관심이 '나' 라는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서 '타인'에게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처럼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그 권력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왕으로서 자신을 알지 못했던 Lear가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에서 서서히 탈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권위의식에서 나오는 오만과 물질위주의 가치관을 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인간의 정신세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폭풍우 장면은 Lear로 하여금 진정한 자아인식을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자신의 본 모습을 완전히 직시하게 되는 것은, 폭풍우 치는 광야에서 Poor Tom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Lear는 폭풍우의 고통을 겪으면서 세상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며, Poor Tom과의 만남을 통해 폭풍우 속에서의 배움을 완성하고 있다. 따라서 Lear와 Poor Tom과의 만남은, Lear의 자아의식의 여정에서 Cordelia와 화해하는 장면과 함께 일종의 분기점을 이루는 대목이기도 하다.

Poor Tom을 만나기 직전 Lear의 상태는 여전히 내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광증의 진행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자신을 아낌없이 모두 준 “늙고 인자한 아버지 (Your old kind father)” (III.iv. 20)로 여기고 있으며, 배은망덕한 딸들에 대한 분노와 “죄를 지었다기 보다는 침범을 당한 (more sinn'd against than sinning)” (III.ii. 59-60)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다. Poor Tom으로 가장한 Edgar를 만나기 직전의 Lear의 상태를 Muir는 거의 광증의 상태로 보고 조금만 외부적인 자극이 가해지면 필연적으로 내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정신상태에 있다고 말한다.

Yet Lear, on the appearance of Poor Tom, does go mad.
 Obsessed as he is with thought of filial ingratitude, it needs

only a little shock to drive him over the frontiers of sanity.
(49)

Lear는 Goneril과 Regan의 악의 양상인 애니멀리즘에 의해 그의 정신적 내면의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광증 상태에서 Poor Tom을 만난다. 이러한 사실은 Lear가 Poor Tom으로 가장한 Edgar를 보고 “자네도 두 딸들에게 모든 것을 양도했는가?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Didst thou give all to thy daughters? / And art thou come to this?)” (III.iv. 47-48)라는 대사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가장한 Tom의 출현이야말로 Lear에게 “충격(shock)”이 되어 깊은 통찰력을 가져 다 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그 통찰력에 의하여 Lear는 Tom과 같은 “문명의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인간 (unaccommodated man)” (III.iv. 104)에 대하여 연민의 정을 갖게 되며, 스스로 자연의 상태에서 가식의 옷을 벗어 던짐으로써 자아인식의 과정으로 들어선다. Lear는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Poor Tom의 짐승 같은 모습에서 인간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는 자기가 입고 있는 옷가지를 전부 찢어 던짐으로써 자신을 Poor Tom과 동일시하여 폭풍 속에서 고통받는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고, 나아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기에 이르는 인간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너는 알몸으로 이 추운 날 비바람에 씻기고 있느니
차라리 무덤 속에 있는 게 낫겠다.
인간인데 이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느냐? 저 사람을 보아라.
너는 누에에게서 비단도, 짐승에게서 가죽도, 양에게서 털도,
고양이에게서 사향도 얻지 못했구나. 허허, 여기 있는 세 사람은 모두 가장을 하느라 옷을 입고 있는데, 너는 태어날 때의 모습 그대로구나. 옷을 입지 않으면 인간은 모두 너처럼 두발 달린 별거벗은 짐승에 지나지 않는다. 벗어버리자. 이따위 빌려온 옷들은 벗어버리자! 여봐라, 이 단추를 풀어다오.

Why, thou wert better in thy grave than to
answer with thy uncovered body this extremity of the
skies. Is man no more than this? Consider him well.
Thou owest the worm no silk, the beast no hide, the

sheep no wool, the cat no perfume. Ha! here's three
on's are sophisticated ; thou art the thing itself ; un-
accommodated man is no more but such a poor, bare,
forked animal as thou art. Off, off, you lendings!
Come ; unbutton here. (III. iv. 98-106)

외면적으로 볼 때 Lear는 옷을 벗었을 따름이지만, 실상은 그의 정신세계의 오만과 물질위주 사고방식의 껍질을 벗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장면에서 시작되는 Lear의 자아인식은 Lear가 이처럼 광증 상태에서 역설적으로 내면의 통찰력을 얻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점이다.

Lear는 정신적 고통의 여정에서 여러 번 광증을 의식해 왔다. 그러나 그는 미치게 됨으로써 정신적으로 자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진실을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광증 상태에 있으나 현실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의 마음의 눈은 점점 더 밝아진다.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해 가는 Lear에게 Poor Tom은 충실한 안내자가 된다. Poor Tom은 Lear가 알 수 없는 여러 악마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Lear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혜가 담긴 말을 한다.

악마 놈을 조심하세요. 양친에게 복종하세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맹세를 하지 마세요. 유부녀와
간통하지 마세요. 애인을 치장에 정신팔리게 하지 마세요.

Take heed o' the foul fiend. Obey thy parents;
keep thy word justly; swear not; commit not with man's
sworn spouse; set not thy sweet heart on proud array.
(III. iv. 78-80)

Lear는 이런 현명한 말을 하는 Poor Tom을 존경하고 그를 “테베의 학자 (learned Theban)” (III. iv. 151), “고귀한 철학자 (Noble philosopher)” (III. iv. 166) 그리고 “아테네 선생 (good Athenian)” (III. iv. 174)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데리고 다닌다. 이것은 Lear가 물질적으로 “Nothing” (I. i. 87)인 곳에서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3막 6장에서 Lear는 갑자기 Poor Tom을 재판관으로 청하고, Goneril과 Regan을 심판하는 모의재판을 보겠다고 한다. 이는 억울한 Lear의 정신세계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여기에서 Lear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성숙해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즉, Lear는 겉으로 보기엔 미친 거지이지만 진실의 상징인 Poor Tom으로 하여금 허위의 상징인 두 딸을 심판하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Lear는 이 모의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의 정의와 진리를 부르짖는다.

지옥이다, 암흑이다.
 유황이 타고 있는 나락이다. 이글이글 탄다. 화상을 입는다.
 악취, 부패 ; 더럽다. 더러워! 툇 툇!

there's hell, there's darkness,
 There is the sulphurous pit - burning, scalding,
 Stench, consumption : fie, fie, fie! pah, pah! (IV.vi. 126-128)

여기에서 Lear는 두 딸을 재판하는 개인적 복수심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부패한 인간세계를 개탄하며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호소하고 있는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한 것이다.

4막 6장에서 Lear는 환상적으로 야생화로 몸을 장식하고 등장한다. Edgar에 의해서 인도된 눈먼 Gloucester와 미친 Lear가 만나는 장면은, 광증 플롯과 실명 플롯이 극이라는 직조물 안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Lear는 Dover 근처의 절벽에서 투신자살 소동 끝에 겨우 마음을 바로잡은 Gloucester를 보자 “헛, 고네릴 이다! 흰 수염이 났군! (Ha! Goneril. with a white beard.” (IV.vi. 97)하고 소리친다. 두 눈이 실명된 채 육체적 고통 속에서 죄인처럼 끌려가던 Gloucester가 미친 Lear의 음성을 듣고 왕이 아니냐고 묻자, “나는 저놈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네 죄목은 뭐냐? 간통죄냐? (I parden that man's life, what was thy cause? / Adultery?)” (IV.vi. 110-111)라고 말함으로써, Lear는 그의 죄목을 묻기도 전에 그 사람의 생명을 허락한다고 하는 도량을 보인다. 이와 같이

Lear는 Edgar의 말대로 “광증속의 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Lear는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육안이 아닌 심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눈 먼 Gloucester에게 가르친다.

리어 그 거지가 개에게 쫓겨 도망치는 것을 보았겠지?
 거기서 권력을 쥔 자의 위대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야.
 개도 지위만 있으면 사람을 쫓을 수 있는 거라구.
 이 악독한 순경 놈아, 그 잔인한 손을 멈춰라!
 왜 그 창녀에게 매질을 하려느냐? 네놈의 잔등이나 갈겨라.
 매음을 한다고 해서 매질하는 모양인데, 바로 네가
 그 여자를 간음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지 않느냐?
 고리대금업자가 사기꾼을 교수형에 처한다지?

에드거 의미 있는 말과 무의미한 지껄임이 뒤섞여 있네!
 광증 속에서도 이성이 번득이는구나!

리어 나의 이 불행을 그대가 슬퍼해 준다면 내 눈을 주겠다.
 나는 그대를 잘 알고 있다. 이름이 글로스터지?
 그대는 참아야 해. 우린 모두 울면서 세상에 태어났지.
 이 세상 공기를 처음 마실 때 응애응애 하고 운다는 것을
 그대도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그대에게 얘기해줄 테니,
 들어 보게.

글로스터 아아, 슬픈 일이로다!

리어 우리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이 거대한 바보들의
 무대에 나온 것을 깨닫고 슬피 운다.

Lear And the creature run from the cur? There thou
 mightst behold the great image of authority; a dog's
 obey'd in office.
 Thou rascal beadle, hold thy bloody hand!
 Why dost thou lash that whore? Strip thine own back;
 Thou hostly lusts to use her in that kind
 For which thou whipp'st her. The usurer hangs the
 cozener.

Edgar O! matter and impertinency mix'd;
 Reason in madness !

Lear If thou wilt weep my fortune, take my eyes;
 I know thee well enough; thy name is Gloucester:

Thou must be patient; we came crying hither:
 Thou know'st the first time that we shall the air
 We waul and cry. I will preach to thee: mark.
 Glou. Alack, alack he day!
 Lear. When we are born, we cry that we are come
 To this great stage of fools. (IV.vi. 167-183)

여기서 말하는 “광증속의 이성”은 Lear가 광증 속에서 참혹한 정신적 고통을 거쳐 이성을 되찾아 새 사람이 되어 가는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핵심적 패러독스인 것이다. 또한 Lear는 이러한 모순덩어리 세상을 바보들이 우글거리며 서로 물고 뜯는 하나의 커다란 무대라고 생각한다. 개라도 지위만 있으면 사람이 복종하는 이 세상, 속으로는 탐욕이 타오르면서 갈보가 매음을 했다고 매질을 하는 잔인한 순경의 횡포, 그리고 고리대금업자가 사기꾼을 교수형에 처하는 잔인한 현실, 최악이 황금갑옷을 입고 정의의 창을 무찔러 버리는 비정한 현실을 Lear는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덩어리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심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Lear는 엄청난 분노를 느끼면서도 자신에게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성적 사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막 7장에서 Lear가 다시 태어나기 위한 진통을 마치고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과거의 Lear와는 다른 모습의 Lear로 나타남은 뜻하는 바가 크다. 제 정신으로 회복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Cordelia를 만났을 때 그녀를 “축복 받은 영혼 (a soul in bliss)” (IV.vii. 46)으로 간주한다. 자신이 겪어온 많은 시련들을 되새기면서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인간적인 사랑과 동정심을 느낄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그것을 보고 가엾어서 죽고 싶을 거다.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꼴을 겪고 있으면

I should even die with pity
 To see another thus. (IV.vii. 53-54)

I know you do not love me; for your sisters
 Have, as I do remember, done me wrong:
 You have some cause, they have not.
 Cordelia No cause, no cause. (IV. vii. 68-74)

이 장면은 정신적 맹목 상태에서 내적으로 통찰력과 분별력을 얻어 사물을 정확히 보는 능력을 획득하여 자신의 과오를 철저히 깨닫고, 고통과 인내를 통한 새로운 차원의 자아인식의 종착역에 도달했다는 느낌을 준다. 즉 Lear는 인간관계의 차원을 초월한 진실한 사랑과 자신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줄도 아는 겸손한 인간이 된 것이다.

참고 견디어라.
 과거를 잊고 나를 용서해라. 난 어리석은 늙은이야

You must bear with me.
 Pray you now, forget and forgive: I am old and foolish.
 (IV.vii. 82-83)

지금까지 Lear의 자아인식의 여정을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Lear는 극단적인 정신적 고통을 거쳐 인내와 통찰력 그리고 분별력을 얻어 사물을 정확히 보는 능력을 획득하며, 이를 통해 사물의 외부를 뚫고 내면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뜨게 된다. 자신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인간관계의 차원을 초월한 진실한 사랑과 죽기 직전에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인간의 진실한 사랑을 깨닫고 스스로 그러한 사랑을 느끼면서 죽는다. 이러한 사랑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정신적 가치이며, 인간의 영혼의 세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느낄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진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Lear는 극한 정신적 고통을 통하여 점차로 자신이 착각했던 허구와 진실을 올바르게 분별하게 되며, 완전한 광증 상태에서 역설적으로 내면의 이성적인 진실을 깨닫게 되는 “광증속의 이성”에 이르러 새로운 차원의 자아인식에 다다르게 된 것이다.

2. 실명속의 통찰

Lear의 경우 조화로운 우주 질서 가운데 통치되는 왕국을 스스로 분리시킴으로써 국가의 정치적 질서파괴를 초래했고, 그 결과 Lear는 Goneril과 Regan의 악의 양상인 애니멀리즘으로 인하여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광야로 뛰쳐나가 결국 미치게되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된다. 반면에 Gloucester의 경우에는 천륜의 윤리적 질서 속에서 유지되어야 할 부모와 자식간의 인간세계의 질서파괴를 초래해, Edmund의 악의 양상인 마키아벨리즘의 계략에 의해 눈이 실명되는 육체적 고통을 당하게 된다.

Gloucester도 Lear만큼이나 허구와 진실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며, 자신의 음란한 행각을 Kent에게 서슴없이 말하는 등 경솔하고도 부도덕한 인물이다. (I. i. 12-23) Gloucester는 의심할 줄 모르는 단순함 때문에 권력과 재산을 획득하기 위하여 장자 Edgar를 모함하는 마키아벨리즘적 악의 전형인 서자 Edmund의 계략에 넘어가 Edgar를 추방해 버리는 과오를 범한다. Gloucester는 Edmund가 호주머니 속으로 급히 넣는 편지를 보고 수상히 여겨 Edmund에게 거듭 무슨 내용의 편지를 읽고 있었느냐고 묻게 된다. (I. i. 31-40) Edmund의 대답은 “아무것도 읽지 않았습시다 (Nothing, my Lord)” (I. i. 32)이다. 이 대답은 Lear왕에게 한 Cordelia의 첫 번째 대답과 같은 차원의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두 아버지인 Lear와 Gloucester는 “Nothing”이라는 각각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또 알고 하지도 않은 채 자신들이 지금까지 생각한 세속적이며 물질적인 개념의 “Nothing”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음의 눈이 먼 Gloucester는 Edmund가 꾸며낸 계략에 속아 장자 Edgar를 악당으로 생각하고 Edgar를 잡아오도록 시킨다. 이렇게 Gloucester도 Lear와 마찬가지로 성급한 결정을 내리며 지나치게 분노를 터뜨린다.

지독한 놈이다, 지독한 놈! 이 편지도 바로 그 얘기나 다름 없잖느냐!
가증스런 놈! 부친의 정도 모르는, 흉악한 짐승 같은 악당 놈!
짐승만도 못한 놈! 가서 그놈을 찾아오너라.

그놈을 잡아야겠다. 지독한 놈! 그놈이 어디 있느냐?

O villain, villain! His very opinion in the
letter! Abhorred villain! Unnatural, detested, brutish
villain! worse than brutish! Go, sirrsh, seek him; I'll
apprehend him. Abominable villain! Where is he? (I. ii. 75-78)

Gloucester 역시 Lear에 못지 않은 성급함, 오만함과 어리석음의 성격적 결함을 지니고 있음을 이 대목에서 엿볼 수 있다. 한편 Edmund의 음모에 휘말려 쫓기는 몸이 되어 숲으로 도망쳐온 Edgar는 미친 거지인 Poor Tom으로 위장하고, 앞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을 Lear와 육체적 고통을 겪을 Gloucester를 절망에서 구해내고 정신적 맹목을 치료하는 패러독스 과정에서 치료제 역할을 하게 된다.

3막 3장에 가서야 Gloucester 플롯은 전환점에 이르는데, Lear와의 관계가 소극적이던 그가 Lear 편에 서서 Lear를 돕고자 한다.

우린
국왕폐하의 편에 서지 않으면 안 돼. 국왕을 찾아서 은밀히
그분을 구조할 테니.

We must
incline to the King. I will seek him and privily
him; (III.iii. 13-15)

Gloucester는 맹렬하게 휘몰아치는 폭풍우와 뇌성 속으로 Lear를 찾아 나선다. 꿈이나 무서운 사자도 견디기 힘든 혹독한 날씨에 광야를 헤매는 Lear를 위로하고 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지금은 Gloucester도 미칠 지경에 이르러 폭풍우 속에서 광증을 나타내 보이는 Lear 못지 않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Lear의 경우와 같이 그가 믿고 어느 누구보다도 더 사랑했던 자식으로부터 배반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르고 있음이 다음 대사에서 잘 나타나 있다.

[REGAN plucks his beard.

Gloucester By the kind gods, 'tis most ignobly done
To pluck me by the beard. (III.vii. 34-36)

그리고는 Regan이 “왜 도버로 보냈느냐? (Wherefore to Dover?)” (III.vii. 52)라는 질문에 Gloucester는 “왜냐고? 네가 그 잔인한 손톱으로 불쌍한 늙은 왕의 눈알을 후벼파는걸 차마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Because I would not see / thy cruel nails pluck out his poor old eyes;)” (III.vii. 56)라고 대답하며, Regan을 배은망덕한 딸이라고 욕설을 퍼붓는다. Gloucester의 이 욕설은 곧 자신의 눈이 실명될 것을 미리 암시해 주고 있는 아이러니컬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기도 한데, Cornwall과 Regan은 Gloucester를 의자에 묶어 두 눈을 뽑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육체적 고통을 가한다.

콘월 불 수 없게 만들어주지. 여봐라, 의자를 꼭 붙들고 있어라.
네놈의 눈알을 발로 짓밟아버리겠다.

아, 실로 잔인한 일이다! 아, 신이시여!
글로스터 늙을 때까지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세요!
(그로스터의 눈알을 뽑는다)

리건 한쪽 눈만 빠지면 나머지 한쪽이 보고 놀릴 테니,
다른 쪽 눈마저 빼버리세요.

Cornwall See 't shalt thou never. Fellows, hold the chair.
Upon these eyes of thine I'll set my foot.

Gloucester He that will think to live till he be old,
Give me some help! O cruel! O ye gods!

[BLOUCESTER'S eye put out.

Regan One side will mock another; the other too.
(III.vii. 67-71)

Stewart는 Gloucester의 두 눈 상실 장면을 Shakespeare의 극적 기교의 일환으로 해석하면서, Gloucester의 부 플롯은 Lear의 주 플롯을 대조적으로 돋보이게 부각시키는 것으로 보아, 이 두 눈 상실 장면도 *King Lear* 전체에 깔려있는 인간 고뇌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여긴다.

The blinding of Gloucester represents a sort of crystallizing of this element of physical outrage which the imagery holds so massively in suspension throughout the play. As a means of intensification the technique is found elsewhere. (23)

또한 Downer도 Lear의 폭풍우 장면과 Gloucester의 두 눈 상실장면은 극의 주제와 관련해서 극의 전개에 필수적이며, 특히 후자의 경우를 “극의 의미를 명백히 해주는 이미지의 극화” (34) 장면으로 해석한다.

결국 Gloucester의 경우 두 눈이 뽑혀 실명 당하게되는 극단적인 육체적 고통을 겪고 나서야, Regan으로부터 그의 배반의 비밀을 알려준 장본인이 Edmund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마키아벨리즘의 악의 전형인 Edmund의 교활한 음모로 착한 Edgar가 억울하게 부친살해 용의자로 지명 수배된 사실을 알게 된 Gloucester는 극단적인 육체적 고통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한탄한다.



오, 내가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구나! 에드거가 모략을 당했어.
자비로우신 신들이여, 용서하소서. 에드거에게 행운을 허락하소서!

O my follies! Then Edgar was abus'd.
Kind gods, forgive me that, and prosper him! (III.vii. 91-92)

이 장면은 Gloucester가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뉘우치고 비로소 Edgar의 행운을 갈망하는 Gloucester 플롯의 전개과정에서 극적 전환점을 가져오고 있고, Gloucester의 정신적 자아인식에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는 대목이다. 또한 지금까지 육체적 실명(physical blindness) 상태였던 Gloucester가 자신의 육체적인 두 눈을 상실함으로써 오히려 사물을 정확히 보는 능력, 즉 심안의 깨우침이 일어나는 극적 패러독스를 이루고 있다. 이점에 대하여 L. C. Knights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One character echoes another: the blinding of Gloucester parallels the cruelty done to Lear; Gloucester loses his eyes,

Lear's mind is darkened; Gloucester learns to 'see better'
...in his blindness. (92-93)

4막에 이르러 Gloucester는 두 눈이 뽑히는 극단적인 고통을 치른 대가로 점차 진실을 깨닫게 되고 이제 그의 정신세계는 점차로 심화·확대되어 간다. Gloucester는 “눈이 보일 적에도 나는 오히려 과오를 범했어. 이제야 난 알겠네. (I stumbled when I saw. Full oft' tis seen)” (IV. i. 19)라고 말하며, 양 눈을 상실하는 극단적인 육체적 고통을 겪고서야 모든 것을 새롭게 인식한다. Lear가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인식하고 기도를 한 것처럼, Gloucester도 물질적인 것의 공평성을 하늘에 기원하면서 육체적인 욕정 때문에 자신이 잘못 저지른 행동에 대해 벌을 내리도록 기도를 한다.

마땅히 가야 할 행선지도 없으니, 눈도 필요 없네.
눈이 보일 적에도 나는 오히려 과오를 범했어. 이제야 난 알겠네.
의지할 곳이 있으면 사람은 방심하지만, 아무것도 없으면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법이야. 아, 사랑하는 내 아들 에드거,
너는 속아넘어간 이 아버지의 노여움 때문에 희생되었구나!
내가 살아 생전에 너를 만져볼 수만 있다면,
나는 다시 눈을 얻은 거나 다름없겠다!

I have no way, and therefore want no eyes;
I stumbled when I saw. Full oft' tis seen,
Our means secure us, and our mere defects
Prove our commodities. Ah! dear son Edgar,
The food of thy abused father's wrath;
Might I but live to see thee in my touch,
I'd say I had eyes again. (IV. i. 18-24)

Gloucester는 자신이 과거의 정신적 맹목상태에서 Edmund의 알뜰한 속임수에 넘어갈 정도로 어리석었다는 사실과 눈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이제 장님이 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을 볼 수 있는 현실에 대해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것이다. Lear가 이성을 상실하고 광증 속에서 통찰력을 얻게 되었듯이, Gloucester도 시력을 상실하고 심안을 얻게 되

는 '실명속의 통찰'의 역설이 여기서 표면화되고 있다.

Gloucester는 눈을 잃은 극도의 육체적 고통을 겪으면서 통찰력이 생겨 진실을 볼 수 있게 되었고, 타인에 대한 동정심과 순수한 사랑을 느끼면서 자신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신의 질서를 거절하고 인간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하는 극도의 절망상태까지 빠져든다.

신은 아이들이 과리를 다루듯이 우리 인간을 다루고 있어.
신은 인간을 장난삼아 죽이지.

As flies to wanton boys, are we to the gods;
They kill us for their sport. (IV. i. 36-37)

자신이 "신(gods)"을 찾았을 때 곤경에 처한 자신을 도와주고 위로해 준다고 생각했던 "신"도 순간적으로 자신과 무관하고,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혼란 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되자 자신의 모든 신념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래서 정의를 무시하고 인간을 무력한 존재로 여긴다. 결국 Gloucester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고뇌와 양 눈을 잃은 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절망감 때문에 자살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이 처한 처지에 대해서 비판하며 자살을 결심하기에 이른다. 마침내 그는 Edgar에게 Dover로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한다. 고통스러운 세상을 버리고 싶은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정황은 Lear가 자신뿐만 아니라 인간을 알기 위해서 옷을 찢어버리고 가장 비참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되었다가 다시 정신적으로 상승하였듯이, Gloucester가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할 가장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Edgar의 손에 이끌리어 Dover의 절벽으로 향하는 Gloucester가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한 처지와 그들에 대한 신들의 공정한 처리를 기원하는데, 이것은 그가 전에는 깨닫지 못하던 보편적 진실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라는 의미에서 3막 4장의 Lear의 깨달음과 거의 같은 차원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신이시여, 언제나 이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부가 넘쳐나 호의호식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천박하게 여기는 자들,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간의 쓰라림을 외면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위력을 즉시
 느끼도록 해 주소서. 이렇게 하면 적당한 분배가 과잉을 없애
 너나 할 것 없이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Heavens, deal so still!
 Let the superfluous and lust-dieted man,
 That slaves your ordinance, that will not see
 Because he does not feel, feel your power quickly;
 So distribution should undo excess,
 And each man have enough. (IV. i. 66-71)

상상의 절벽에서 뛰어 내리기 전 Gloucester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가엸은 Edgar에게 준다. 이것은 새로운 탄생을 위해 물질적인 껍질을 한 겹 벗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다음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자살을 하는 것이 “거역할 수 없는 막강한 당신의 힘 (God’s) great opposeless wills” (IV.vi. 39)에 어긋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벽찬 번뇌 (his) great affliction” (IV.vi. 37)을 떨쳐 버리고 싶은 것이다. 곧 그는 그의 결심을 실행에 옮겨 뛰어 내린다. 이 장면에 대해서 Wilson Knight는 “ridiculous” (171) 하다는 식으로 해석하고, Harrison도 이 장면에 희극적인 요소가 있고 사건이 우스꽝스러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장님이라도 높은 곳에서 추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능히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177) 그러나 이것은 사실로서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그가 겪은 육체적 고통과 욕정 등을 떨쳐 버리는 정화의 한 단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다시 태어나기 위한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Ribner도 “This episode is a ritual element designed to portray an underlying idea.” (133)라고 해서 단지 우스꽝스러운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Gloucester에게는 이제 죽음이 아닌 삶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다. Edgar는 Gloucester가 악마 꾀에 빠져서 절벽으로부터 떨어졌으나 영예로운 신들의 덕분에 살아났다고 하면서,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은 기적

이요. (Thy life's a miracle.)" (IV.vi. 55)이라고 말하며 부친의 영혼을 구제해 준다. 이제 Gloucester는 아들 Edgar의 도움으로 절망을 극복하면서 Lear와 같이 인내를 배우게 된다.

이제부터는 고통이 '그만, 그만'하고
아우성치다 제풀에 꺾여 사라질 때까지
참고 견디겠소.

Henceforth I'll bear
Affliction till it do cry out itself
'Enough, enough.' and die. (IV.vi. 76-77)

Edgar는 고통을 당하면서 이미 참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걱정할 것 없습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지세요 (Bear free and patient thoughts)" (IV.vi. 81)라고 인내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Edgar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은 시련이나 고통을 겪으면 고결해지고 자신의 본성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oddard의 지적대로 고통이 통찰력(Insight)과 인내(Patience)의 자세를 가져다 준 것이다. (147) Gloucester의 이와 같은 경험의 과정은 Wilson Knight의 지적대로 Lear의 내면적 고뇌와 아울러 자아의식에 이르는 과정을 시각화한다.

The Gloucester-theme has thought run separate from that of Lear, yet parallel, and continually giving us direct villainy where the other shows cold callousness: horrors of physical torment where the other has a subtle mental torment. (172)

Gloucester는 4막 6장에서 Lear와 만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대화를 나눈다.

리어 어허! 정말 그렇단 말이지? 머리에는 눈이 없고,
 지갑 속에는 돈이 없다는 얘기로군. 네 눈은 중량이고
 네 돈주머니는 경량이구나.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낚새는

알 수 있겠지?
글로스터 육감으로 압니다.
리어 아니, 미치광이란 말인가? 사람은 눈이 없어도
세상 돌아가는 일쫘은 볼 수 있는 법이야.

Lear. O, ho! are you there with me? No eyes in your
head, nor no money in your purse? Your eyes are in a
heavy case, your purse in a light : yet you see how
this world goes.

Gloucester I see it feelingly.

Lear. What! art mad? A man may see how this
world goes with no eyes. (IV.vi. 145-151)

이 대사에서 Gloucester는 두 눈이 상실되었어도 “육감으로 압니다 (I see it feelingly.)”라고 말하는데, 이 표현에서 Gloucester는 자식의 배신과 함께 육신의 두 눈을 잃는 극단적인 육체적 고통을 거쳐 사물의 외부를 뚫고 내면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비로소 지니게 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이 이 극의 핵심적 패러독스이다. 실성한 Lear와 눈먼 Gloucester의 만남은 두 사람의 정신적 맹목이 빚어낸 서로 다른 결과이며, 이 결과에 따른 패러독스 주제의 효과적인 극적 제시는 무엇보다도 광증과 실명의 두 이미지리 패턴의 대조와 보완 관계에 의하여 이 장면에서 선명히 이루어진다. 이 장면의 극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비평가들이 강조했지만, Granville- Barker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더 없는 승화의 극치라고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The larger dramatic value of the ensuing scene can hardly be overrated. For in it, in this encounter between mad Lear and blind Gloucester, the sensual man robbed of his eyes, and the despot, the light of his mind put out, Shakespeare's sublimation of the two old stories is consummated. (1958, 295)

Gloucester의 경우도 Lear와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고통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 그리고 모든 인간에 대해서도 재인식하게 되며

신과 인간과의 조화로운 관계의 중요성 역시 재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Gloucester는 미친 Lear가 고통을 통해서 얻어낸 진실들을 공감하면서 귀담아 듣는다. Gloucester는 Lear의 체험적 깨달음의 말 즉, “그대는 참아야 해 (Thou must be patient.)” (IV.vi. 178)라는 말을 듣고서 이 말에 적극 공감한다. 이어서 Gloucester는 다시는 자신의 “악독한 근성 (worser spirit)” (IV.vi. 218)이 자신을 유혹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언제나 자비심 많은 신들 (ever-gentle gods)” (IV.vi. 217)에게 기도하기에 이른다.

언제나 자비심 많은 신이시여, 당신이 뜻하실 때 제 숨통을 눌러 주십시오. 악독한 제 근성이 저를 유혹하여 신이 허락하시기도 전에 죽고자 하는 마음을 먹지 않도록 해주소서!

You ever-gentle gods, take my breath from me:
Let not my worse spirit tempt me again
To die before you please! (IV.vi. 217-219)

이 대사에서 “악독한 근성”은 자신을 절망하게 만든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보다 동물적인 본능 즉, 욕망이나 분노와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러한 욕망과 분노와 같은 감정들에게 다시는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신의 뜻에 따라 보다 더 이성적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은, Gloucester도 비로소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아인식을 하는 깨달음의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하고 있다.

5막 2장에서 Gloucester는 Cordelia가 전투에서 패배하여 Lear와 함께 포로가 되었으니 피하자는 Edgar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여기서 죽으면 그만이야 (a man may rot even here.)” (V.ii. 8)라고 낙담하지만, Edgar는 즉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를 한다.

왜 그러세요, 또 음울한 생각에 잠기신 거예요? 사람이란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떠나는 것도 임의로는 안 되는 법예요. 때가 무르익는 것이 중요합니다.

What! in ill thoughts again? Men must endure

Their going hence, even as their coming hither:
Ripeness is all. (V.ii. 9-11)

Edgar는 Gloucester에게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성숙한 때가 있으므로 그때까지 끈기 있게 인내심을 지니고 기다리는 것이 삶에 있어 최선임을 강조한다. 인간은 죽음의 시간이 올 때까지 어떠한 고통도 참아야 하며, 태어날 때와 마찬가지로 죽는 시간도 우리들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신들의 뜻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Edgar의 말에 Gloucester는 최종적으로 “그 말도 옳다 (And that’s true too.)” (V.ii. 11)라고 Edgar의 뜻을 받아들임으로써, 인생의 교훈을 깨닫게 되는 새로운 존재로 발전하여 삶의 본질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인식하기에 이르게 된다.

결국 Gloucester의 경우도, Lear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통해 “광증속에 이성”을 되찾아 Cordelia와의 화해와 사랑 속에서 자아인식에 다다르듯이, 정신적으로 눈이 멀었던 자신이 두 눈을 실명하는 극단적인 육체적 고통을 거쳐 인내를 배우고, 또한 육체적 실명 속에서 통찰력을 되찾아 사물의 외부를 뚫고 내면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지니게 된다. 이처럼 극단적인 육체적 고통을 통해 완전한 실명 상태에서 역설적으로 내면의 통찰력을 지니게되는 ‘실명속의 통찰’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자아인식에 다다르게 된다.

V.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King Lear*는 Lear와 Gloucester가 자신들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한 과오로부터 비롯된 극단적인 정신적, 육체적 고통 및 자각을 통해 자아인식에 도달하게 되는 주인공의 자아인식의 여정을 그린 작품임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이 작품을 애니멀리즘과 마키아벨리즘이라는 악의 측면에서 Lear와 Gloucester가 겪게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자아인식의 여정을 고찰해 보았을 때, 애니멀리즘과 마키아벨리즘이라는 악의 양상이 너무나 잔인한 나머지 Lear와 Gloucester가 겪게되는 고통이 참혹하여 이 작품을 다른 어느 작품보다도 그 비극적 효과를 강하게 표출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Lear와 Gloucester가 얻게되는 고귀한 자아인식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질서파괴와 악의 발현, 그로 인한 악의 실체인 애니멀리즘과 마키아벨리즘으로 인해 겪었던 엄청난 고통으로 Lear와 Gloucester는 자신들의 불완전성을 자각함으로써, 인내를 배우고 타인을 배려해 주는 성숙하고 정화된 마음을 지닌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자아인식의 종착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막강한 권력과 넓은 영토를 소유한 오만한 노왕 Lear는, 1막 1장에서 아집과 풍요의 타성에 젖어 외양과 실재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의 어리석은 처사로 인하여 왕국전체에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한다. 세 딸에게 왕국을 분할해 주고 여생을 그들의 보살핌 속에서 편히 보내고자 국가의 통치권이며 조세권, 기타의 집행권등 왕의 실무와 실권은 넘겨주면서, 왕이라는 칭호와 그에 따르는 명예는 고수하겠다고 밝힌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몫을 준다고 말함으로써, 사랑의 정도를 물질적으로 주고받는 양에 의해 평가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 이 장면에서 Lear는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Cordelia와 Kent의 진실한 사랑과 충성을 거부하게 되는 가치전도의 혼돈으로 빠져든다. 그로 인해 Lear의 광증을 초래하는 Goneril과 Regan의 악의 양상인 애니멀리즘을 초래하여, 폭풍우가 휘몰아치

는 광야로 뛰어들으로써 정신적 고통의 여정이 시작된다. 폭풍우 속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게되는 Lear는 정신적으로 많은 성장을 한다. 자신의 명령이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그에게 폭풍우는 그의 명령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 바로 여기에서 그는 대 자연의 위력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한 존재이며, 자신도 다른 사람과 같은 평범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즉, 광야의 움막은 Lear가 폭풍우로부터 피난처와 안전을 발견한 곳이자 Lear로 하여금 순수한 인간성과 진정한 자아인식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영향을 준 곳인 반면, 1막의 Lear의 궁정은 그의 개인적인 권력의 장소였다. 그곳은 인간성이 공유되지 않는 장소였고, Lear의 오만과 아집에 의해서 움직여지던 곳이었다. 그러나 광야의 움막은 이해관계를 초월한 집단의 장소이며, 헐벗은 거지들이 함께 모여 사는 인간성이 공유되는 사회인 것이다. Lear는 자신이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이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인간임을 깨달은 것이다. Lear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혹독한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 인내를 배우고 타인을 생각해 주는 성숙하고 정화된 마음을 지닌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즉 완전한 광증 상태에서 역설적으로 내면의 이성적인 진실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질서파괴로 인한 악의 발현은 Gloucester에게도 찾아볼 수 있다. Gloucester의 경우, 천륜의 윤리적 질서 속에서 유지되어야 할 부모와 자식간의 인간세계의 질서파괴를 초래한 결과, Gloucester의 실명을 초래하는 Edmund의 악의 양상인 마키아벨리즘을 초래하여 육체적 고통의 여정이 시작된다. Gloucester도 Lear와 같이 고통의 쓰라린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데, 육체적 욕정에 사로잡혀 Edmund와 같은 서자를 낳고, 또한 Edmund의 거짓 말을 너무도 쉽게 믿어버리는 단순함과 그릇된 처사로 인해 육신의 두 눈을 잃는 극단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결국 Gloucester의 경우도, Lear가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광증속의 이성”을 되찾아 새 사람이 되어 Cordelia와의 화해와 사랑 속에서 자아인식에 다다르듯이, 처음에 정신적으로 눈이 멀었던 자신이 두 눈을 잃는 극단적인 고통을 거쳐 인내를 배우고, 또한 육체적 실명 속에서 통찰력을 되찾아 사물의 외부를 뚫고 내면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마

음의 눈을 지니게 된다. 이처럼 극단적인 육체적 고통을 통해 완전한 실명 상태에서 역설적으로 내면의 통찰력을 지니게되는 '실명속의 통찰'에 이르러 새로운 차원의 자아인식에 다다르게 된다.

결국 이 작품을 애니멀리즘과 마키아벨리즘이라는 악의 측면에서 Lear와 Gloucester가 겪게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양상과 자아인식의 여정을 고찰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첫째, Mackbeth의 야망, Iago의 계략 등 Shakespeare의 다른 비극에 표출된 악의 양상들은 단순구조 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King Lear*에서는 애니멀리즘과 마키아벨리즘이라는 지극히 비인간적인 잔혹한 악이 이중구조 속에서 Lear와 Gloucester의 고통을 참혹하게 만들고 있고, 이로 인해 이 작품의 비극적 효과를 강하게 표출시킬 뿐만 아니라 Lear와 Gloucester가 얻게되는 고귀한 자아인식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둘째, 이 작품에 나타나 있는 혹독한 악의 실체라 할 수 있는 애니멀리즘과 마키아벨리즘의 강도가 사건전개에 따라 점점 강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Lear와 Gloucester가 궁극적 자아인식을 하게 하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셋째, 이 작품에서 주인공인 Lear 뿐만 아니라 Gloucester와 Edgar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각기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성취하고 있는 것은 다른 작품의 경우 대체로 주인공 한 사람에게 한정되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비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Lear와 Gloucester가 겪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자아인식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이르게 하기 위한 작가의 숨겨진 의도적인 수단으로 여겨지며, 애니멀리즘과 마키아벨리즘이라는 악의 관점에서 이 작품을 접근해 보았을 때, *King Lear*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삶의 궁극적 방향과 인식 그리고 여기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고통의 여정을 통과해 가는 인간의 의지가 잘 표출된 작품이다.

Bibliography

I. Primary Source

Shakespeare, William. *King Lear*. Ed. Kenneth Muir. New Arden Shakespeare. London: Methuen, 1972.

II. Secondary Sources

- Bradley, A. C. *Shakespearean Tragedy*. London: The Macmillan P, 1904.
- Danby, John. F. *Shakespeare's Doctrine of Nature : A Study of King Lear*. London: Faber & Faber, 1961.
- Dowden, Edward. *Shakespeare : A Critical Study of His Mind and Art*.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67.
- Downer, A. S. "The Life of Our Design : The Function of Imagery in the Poetic Drama", in *Shakespeare : Modern Essays in Criticism*. Ed. Dean. Oxford: Oxford UP, 1967.
- Duthie, G. I. and Wilson, J. D. Ed. *King Lear*. New Shakespeare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P, 1960.
- Edwards, Philip. *Shakespeare : A Writer's Progress*. New York: Oxford UP, 1986.
- Elton, W. R. "Double Plot in King Lear", in *Shakespeare : King Lear*. Ed. Frank Kermode. New York: The Macmillan P, 1982.
- Evans, G. L. *The Upstart Crow : An Introduction to Shakespeare's Plays*. London: J. M. Dent & Sons, 1982.
- Frye, Northrop. *Fools of Time ; Studies in Shakespeare Tragedy*. London: Oxford UP, 1967.
- Gilbert, Felix. "Machiavellism", *Dictionary of the History of Ideas*, Vol.

- III. ed. Philip P. W. New Work: Scribners, 1978.
- Goddard, H. C. *The Meaning of Shakespeare*. Vol. II. Chicago: Chicago UP, 1973.
- Granville-Barker, H. *Prefaces to Shakespeare*. Vol. I. Princeton: Princeton UP, 1974.
- _____. *Prefaces to Shakespeare*. Vol. I. London: B. T. Batsford, 1958.
- Hankins, J. E. *Backgrounds of Shakespeare's Thought*. Has-socks: Harvester P, 1978.
- Harbage, Alfred. *A Reader's Guide to William Shakespeare*.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63.
- Harrison, G. B. *Shakespeare's Tragedie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51.
- Heilman, R. B. *This Great Stage*. Washington: Washington UP, 1963.
- Knights, L. C. *Some Shakespearean Themes*. London: Chatto & Windus, 1959.
- Knight, G. Wilson. *The Wheel of Fire*. London: Methuen, 1930.
- Ludowyk, E. F. C. *Understanding Shakespeare*. London: Cambridge UP, 1962.
- Morris, Harry. *Last Things in Shakespeare*. Tallahassee: Florida States UP, 1985.
- Muir, Kenneth. "Madness in King Lear", *Shakespeare Survey 13*. London: Cambridge UP, 1960.
- _____. "Introduction" in *King Lear*. The Arden Shakespeare. London: Methuen, 1975.
- Muller, Hebert J. *The Spirit of Tragedy*. New York: Alfred A. Knopf., 1956.
- Ribner, Irving. *Patterns in Shakespearean Tragedy*. London: Methuen, 1960.

- Strampfer, J. "The Catharsis of King Lear", *Shakespeare : Modern Essays in Criticism*. Ed. Leonard F. Dean. London: Oxford UP, 1967.
- Stewart, J. I. M. *Character and Motive in Shakespeare*. London: Longmans, 1949.
- Tillyard, E. M. W. *The Elizabethan World Picture*. New York: Vintage Books, 1945.
- Traversi, D. A. *An Approach to Shakespeare*. Vol II. New York: Doubleday, 1956.
- . *An Approach to Shakespeare*. Vol. II. New York: Anchor Books, 1969.
- 문상득. "King Lear의 대조적 요소와 그 배경". 『영어영문학』. 제4권 20호, 서울: 한국영어영문학회, 1966.
- 마키아벨리, 니콜로 베르나르도. 『군주론』. 임명방 역. 서울: 삼성출판사, 1977.
- 셰익스피어, 윌리엄. 『리어왕』. 이태주 역. 서울: 범우사, 1993.

Abstract

A STUDY OF *KING LEAR* : The Aspects of Evil and the Journey of Self-recognition

Cho Bong-Gyu
Dept. of English Lang. & Lit.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or : Kwon Young-Keu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how Animalism and Machiavellism as the representative aspects of evil in *King Lear* have an influence on Lear's and Gloucester's tragic agony and explore how to reach their self-recognition.

Shakespeare describes deep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and a spiritual journey of self-recognition through the tragic agony in *King Lear*. Both Lear, in the main-plot, and Gloucester, in the sub-plot, experienced each purgatorial suffering.

If the cause of evil creation and the aspects of evil development in *King Lear* are carefully observed, we can infer that Lear's spiritual and Gloucester's physical suffering is due to their destruction in an universal order at the opening scene. The action of Lear's order destruction in the opening scene shows us the blindness of his spirit and morality, owing to his headstrong passion and false pride. At the beginning Lear knows neither himself nor the nature of his daughters

who have a generic character of Animalism. The choleric Lear plans to divide the kingdom with a selfish motive and to test his daughter's love for him. His two evil daughters, Goneril and Regan, win his favor by uttering words of flattery. But his youngest daughter Cordelia persists in answering in a terse word, "Nothing". (I. i. 86) As a result, she becomes the target of her father's anger, and is driven out of the kingdom without any benediction. Lear is deceived by false appearances of his wicked daughters and banishes true Cordelia and Kent. His false judgement soon leads him to tragedy, and is exiled into the fierce storm.

When he reaches the state of nothingness, deprived of everything in the storming wilderness, he undergoes a gigantic suffering of spirit and soul brought about by his wrong choice. In madness, Lear begins to understand the poor creature's suffering and he censures the corrupted falseness of this world. Through his suffering in the wilderness, he discovers his identity and begins to learn patience, humbleness, forgiveness and love, and finally he gains 'self-recognition', that is, "Reason in Madness". (IV. vi. 177) In other words, Lear begins to become mad in the wilderness and the madness paradoxically enables him to have the reason that can freely and openly reveal the absurdity of human society and the hypocrisy of human life.

Meanwhile, Gloucester was a slave of lust, and in the passion of it, he begot a bastard son, Edmund who have a generic character of Machiavellism. Deceived by him, he mistrusts his true and legitimate son, Edgar, and in wrath expels him. His foolish decision brings about

great agony in him. Though Gloucester has physical eyes, he can't grasp the real truth, and his destruction action of a universal order between father and son cause his blindness of insight. He, like Lear, is also betrayed by his false son Edmund, and only after his eyes are plucked out, he begins to realize the truth. Though he loses his physical eyes, he earns his inner eyes in Blindness. Through his suffering, he sees the truth of the world for the first time, and becomes a humble and patient man. Then, like Lear, he is able to feel sympathy for poor people and he gains 'Insight in blindness'. After all, Shakespeare reinforces and deepens the meaning of Lear's suffering by using the sub-plot of Gloucester's suffering. Just as Lear finds "Reason in Madness", (IV.vi. 177) so Gloucester gains 'Insight in blindness', and at last they recognized their imperfection and could be born 'a new man'.

In conclusion, *King Lear* is referred to as a story of Lear's spiritual journey from ignorance to knowledge. Through the tragic life of Lear, Shakespeare gives us the meaning of life and the opportunity to think of the meaning of suffering in our days. To achieve a really valuable life, man must make efforts constantly, and has to endure. Also, man is to be open-minded, transcending his ego and sympathetic towards others. *King Lear* shows us 'human completion' for man to pursue and a spiritual journey through agony to attain this aim.